농업·농촌경제동향

2011 겨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발간물정보/정기간행물/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정책지원팀
(한재환 jhhan@krei.re.kr/조우림 urimcho@krei.re.kr/
장도환 zzangdh@krei.re.kr)

연락처: 02-3299-4353 / 팩스: 02-964-5631

목 차

Ⅰ. 국내경제 동향

1. 경제성장 ····· 1
2. 고용 ····· 3
3. 소비 ····· 5
4. 물가 ····· 7
5. 금융·환율 ····· 13

Ⅱ. 농촌경제 동향

1. 농산물 물가지수 ····· 16
2. 농림어업 취업자 ····· 22
3. 농축수산물 수출입 ····· 24
4. 국제곡물 가격 동향 및 조기경보지수 ····· 31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 34
2. 엽근채소 ····· 39
3. 양념채소 ····· 45
4. 과일 ····· 53
5. 과채 ····· 65
6. 축산 ····· 71

특별 주제 1.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83

2.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 100

【요 약】

Ⅰ. 국내경제 동향

- 2011년 1～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함.
- 2011년 1～3/4분기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함.
- 2011년 1～3/4분기 총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함.
- 2011년 1～3/4분기 총수입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함.
- 2011년 12월 취업자는 24,125천명으로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441천명 증가함.
- 2011년 11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함.
- 2011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89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증가함(실질로는 1.6% 증가).
- 2011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9로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 4.3% 상승함.
- 2011년 3/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함.
- 2011년 12월말 원/달러 환율은 전 월말 종가(1,146원)대비 13원 상승한 1,159원을 기록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1년 11월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로 전년 동월보다 3.0% 상승하였으며, 10월보다도 1.3% 상승함.

- 2011년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배추, 무, 마늘(난지)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지난 3/4분기보다 크게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쌀, 사과(후지) 등은 상승함.

- 2011년 12월 농산물체감물가지수는 114.1로 10월보다 2.4% 상승함.

- 2011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21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하였고, 전기 대비 10.7% 감소함.

- 2011년 1~11월 농림축산물 수출은 총 4,48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7% 증가함. 농림축산물 중 농산물 수출액은 4,071백만 달러로 단감, 감귤 등 과실류와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4.5% 증가함.

- 2011년 1~11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6,16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7% 증가함.

Ⅲ. 특별주제 주요 시사점

1.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3년부터 정부주도로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시범사업과도 연동하여 추진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2005~2007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최근에는 돼지고기와 천일염 이력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등록 농가는 2006년 8,808농가에서 2010년 88,218농가로 약 10배 규모로 증가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한 업체는 1,300개 규모로 판매점이 대부분(78.6%)임.

-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운영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ⅰ) 농식품 이력관리 관련 법률의 품목별 분산; ⅱ) 농식품 이력관리의 목적 불분명; ⅲ) 농식품 이력관리 규정 불일치; ⅳ) 이력관리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ⅴ)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참여 부족; ⅵ)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기반 조성 미흡.

- 이력관리제도의 추진 목적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이력제도와 안전관리가 차별화된다는 측면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소비자들은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거래 추적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보제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국가의 이력관리제도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ⅰ) 소·쇠고기 이력제도는 의무 시행 추세; ⅱ) 소 이력제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품목별로 자율적 시행; ⅲ) 정보 인식을 통한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력제도 시행; ⅳ)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방향 설정.

- 국내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활성화 방안은 7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음: ⅰ)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추진 방향을 국제기준 부합, 이력관리 목적 분명, 제도 활성화로 설정 필요; ⅱ) 이력관리제도 목적 재정립; ⅲ) 이력관리 추진체계 전환; ⅳ) 이력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검토; ⅴ) 이력관리제도 운영방식 개선; ⅵ) 이력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ⅶ) 이력관리 기반 조성.

2.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 우리나라 유가공제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저출산, 모유 수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시유 및 분유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대체음료 시장의 확대 등으로 시장의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 유가공제조업의 구조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산업 내 최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기준 26.8%였으며 상위 4개 기업(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남양유업)의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함.

- 2010년 시유 생산량은 2000년 이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발효유 중 액상발효유는 2000년에 약 405톤이 생산된 이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하여 약 373톤이 생산되었음. 반면 호상발효유는 2000년에 약 124톤이 생산된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2009년보다 감소한 약 129톤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남.

- 자연치즈 생산량은 200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체에서 주요 원료인 우유를 구매 및 조달하는 방식은 산지직구매가 40.5%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체에서 30.7%, 도매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로부터 3.9%의 비중으로 조사되었음.

- 우유를 산지에서 직구매하는 21개 업체 중 80.9%의 업체에서는 계약생산을 통한 산지직구매를 하고 있고, 직접생산을 하는 업체는 14.3%, 1회성 수시 매입하는 업체는 4.9%로 조사되었음.

- 국내 유가공산업이 직면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ⅰ) 원유수급조절 한계; ⅱ) 유지방 위주의 원유가격 산정 및 과도한 유통마진; ⅲ) 유가공제품의 소비정체; ⅳ) 영양성분 등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 미흡; ⅴ) 유가공제품의 수입 증가.

- 국내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점과제와 추진 전략은 5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ⅰ) 안전한 원유의 수급안정; ⅱ) 신수요 창출; ⅲ) 국내외 경쟁력 제고; ⅳ) 고부가 유가공 기술개발; ⅴ)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Ⅰ. 국내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 2011년 1~3/4분기 원계열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함.
  - 1~3/4분기 농림어업은 1분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업 부진과 3분기 집중호우에 따른 재배업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3.0% 감소함.

- 2011년 1~3/4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 승용차 등 내구재 증가, 2분기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호재, 3분기 승용차, 휴대용전화기 등의 내구재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함.

- 2011년 1~3/4분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과 건물건설 모두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줄어 전년 동기대비 7.5% 감소함.

- 2011년 1~3/4분기 총수출은 1분기 반도체 및 전자부품, 자동차 등 재화수출 증가, 2분기 선박 및 통신기기 수출 증가, 3분기 자동차와 금속제품 등의 수출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함.

- 2011년 1~3/4분기 총수입은 1분기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국내소비 회복, 2분기 기계류 및 금속제품 수입 증가, 3분기 고유가 및 내수 회복세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8.2% 증가함.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장도환 연구원(zzangdh@krei.re.kr)이 작성하였음.

【 경제성장률 추이(2005년 연쇄가격 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9	2010p					2011p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3/4
GDP 성장률	0.3	6.2	8.5	7.5	4.4	4.7	4.2	3.4	3.5	3.7
최종소비지출	1.2	3.9	5.9	3.4	3.4	3.0	2.5	2.8	2.3	2.5
(민 간)	0.0	4.1	6.6	3.5	3.6	2.9	2.8	3.0	2.0	2.6
총고정자본형성	-1.0	7.0	12.5	6.8	6.8	3.4	-2.2	-1.1	-2.0	-1.7
(건 설)	3.4	-1.4	4.3	-2.3	-3.1	-2.9	-11.9	-6.8	-4.6	-7.5
(설 비)	-9.8	25.0	29.1	30.5	26.6	15.9	11.7	7.5	1.0	6.4
총 수 출	-1.2	14.5	16.7	14.5	11.6	15.7	16.8	9.6	9.6	11.8
총 수 입	-8.0	16.9	21.5	18.0	14.7	14.2	10.8	7.9	6.0	8.2

주: 2010p, 2011p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 2012년 연간GDP 성장률은 3.7%를 보일 전망이며, 2013년은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가계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임.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고,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증가폭이 축소됨. 수출은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 전망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3.8	3.8	3.8	3.4	3.8	3.7	4.2
민간소비	2.9	2.1	2.5	2.6	3.6	3.2	4.0
건설투자	9.4	0.0	4.5	0.3	7.9	4.2	7.0
설비투자	-9.0	-2.1	-5.3	4.4	1.4	2.8	2.4
상품수출	14.9	8.7	11.6	3.5	6.4	5.0	10.2
상품수입	11.8	6.9	9.3	2.5	7.7	5.2	10.4

주 1.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1.12.9 발표한 2012년 경제전망을 참고함.
2. 2011년 하반기와 연간, 2012e), 2013e)는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2. 고용

- 2011년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함. 실업률(계절조정)은 3.1%로 전년 동기보다 0.3%p 낮은 수준이며, 전 분기보다도 0.1%p 하락함.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함.

- 2011년 12월 취업자는 24,12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41천명 증가함.

- 12월 실업률(계절조정)은 3.1%로 전년 동월보다 0.4%p 낮으며, 전월과는 비슷한 수준임.

- 12월 산업별 취업자를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조업과 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2만8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8만1천명) 등에서는 증가함.

【 고 용 동 향】

단위: 천명, %

	2010				2011				전년 동기비 증감률
	1/4	2/4	3/4	4/4	1/4	2/4	3/4	4/4	
경 제 활 동 인 구	24,166	25,038	24,993	24,796	24,488	25,437	25,269	25,202	1.6
(경제활동참가율)	59.8	61.8	61.5	60.8	59.9	62.0	61.5	61.1	
취 업 자	23,037	24,170	24,120	23,989	23,459	24,572	24,483	24,462	2.0
· 농 림 어 업	1,235	1,733	1,754	1,544	1,207	1,736	1,704	1,521	-1.5
· 광 공 업	3,934	4,035	4,072	4,153	4,163	4,143	4,054	4,072	-2.0
(제 조 업)	3,911	4,015	4,053	4,131	4,139	4,127	4,041	4,056	-1.8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7,868	18,402	18,293	18,292	18,090	18,693	18,726	18,870	3.2
(건 설 업)	1,644	1,816	1,791	1,761	1,641	1,774	1,755	1,832	4.0
실 업 자	1,130	868	873	808	1,028	865	786	740	-8.4
실업률(계절조정)	4.3	3.4	3.6	3.4	3.9	3.4	3.2	3.1	

자료: 통계청

【 고용 동향 변화 추이 】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2010. 12		2011. 11		2011. 12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경 제 활 동 인 구	24,538	2.0	25,318	1.9	24,880	1.4
취 업 자	23,684	2.0	24,589	2.0	24,125	1.9
(고 용 률)	(58.0)		(59.7)		(58.5)	
· 농 림 어 업	1,231	0.0	1,598	-0.7	1,206	-2.0
· 광 공 업	4,182	7.4	4,070	-2.2	4,086	-2.3
(제 조 업)	4,156	7.3	4,054	-2.1	4,071	-2.1
· 건 설 업	1,726	1.5	1,842	3.7	1,832	6.1
· 도소매·음식숙박업	5,488	-1.4	5,544	1.8	5,570	1.5
· 전기·운수·통신·금융	2,871	1.0	3,014	5.7	3,017	5.1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8,186	2.4	8,521	3.1	8,415	2.8
실 업 률	3.5		2.9		3.0	
(계 절 조 정)	(3.5)		(3.1)		(3.1)	

자료: 통계청

3. 소비

- 2011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4% 증가, 전년 동기대비로는 2.0% 증가함.

- 2011년 11월 소매판매는 이상기온 등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와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 동월대비 0.5% 증가함.
  - 내구재의 경우, 승용차 판매가 전월에 이어 감소하였으나,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여 전월대비 3.8% 증가,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함.
  - 소매 업태별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가 전월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문상품소매점과 무점포 판매가 소폭 증가함.

- 유럽 재정불안 등 불확실성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나, 일부 소비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 소비 동향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9	2010				2011				
	연간	1/4	2/4	3/4	4/4	1/4	2/4	3/4p	10월p	11월p
소 매 판 매	2.6	9.7	4.9	7.5	5.1	5.1	5.7	4.4	2.2	0.5
(내 구 재)[1]	8.1	29.6	5.6	17.0	10.6	12.9	17.5	10.4	2.9	5.8
(준내구재)[2]	0.3	2.5	6.2	6.6	11.1	6.1	5.6	4.0	3.7	-2.4
(비내구재)[3]	1.2	3.2	3.3	3.0	-0.7	0.8	-0.4	2.0	3.0	-0.2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자료: 기획재정부

- 2011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89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함.
  - 고용 개선에 따라 가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고용확대 등에 따라 근로소득(6.2%) 및 사업소득(4.9%)이 증가함.
  - 공적이전 및 가구 간 이전 증가에 따라 이전소득(10.7%)이 증가함.
  -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득은 1.6% 증가함.

- 2011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4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함.
  - 식료품·비주류음료(7.0%), 의류·신발(9.4%), 교통(12.6%) 등이 크게 증가함.
  - 물가수준을 감안한 실질소비는 2.1% 증가함.

【 전가구(2인 이상) 가계수지 변화추이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소 득	1.2	5.8	7.4	7.6	6.1	2.4	3.5	4.7	6.5
(경상소득)	1.2	6.0	7.2	7.5	6.3	3.2	4.5	4.7	6.3
(비경상소득)	1.1	1.8	10.3	9.1	-1.2	-17.2	-14.0	7.3	11.7
소 비 지 출	1.7	6.4	9.5	6.7	5.4	4.2	4.3	4.3	5.8
(식료품·비주류음료)	-0.2	6.5	4.5	3.5	10.0	7.8	8.4	8.9	7.0
(의류·신발)	0.2	10.9	8.6	11.0	10.0	13.1	9.3	5.3	9.4
(교 통)	1.5	2.0	16.9	5.4	-1.1	-7.7	11.5	10.8	12.6
(교 육)	6.9	2.4	4.9	1.0	2.7	-0.5	-3.0	-2.7	1.0
(음식·숙박)	-2.5	4.1	8.1	5.2	3.0	0.6	-0.6	-0.7	5.2

자료: 통계청

4. 물가

- 2011년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로 전분기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대비 4.0% 상승함.

-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로 전월대비 0.4%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로는 4.2% 상승함.
  - 상품은 전월대비 0.5%, 전년 동월대비로는 5.7% 각각 상승함.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2.3%, 전년 동월대비 5.8% 각각 상승함.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5.3% 각각 상승함.
  - 서비스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대비로는 2.8% 각각 상승함.

【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총 지 수	99.0	99.6	100.4	100.9	102.8	103.6	104.7	104.9
	(3.0)	(2.6)	(2.9)	(3.2)	(3.8)	(4.0)	(4.3)	(4.0)
상 품	98.6	99.4	100.6	101.4	104.2	104.8	106.7	106.9
	(4.7)	(4.0)	(4.6)	(5.4)	(5.7)	(5.4)	(6.1)	(5.4)
농축수산물	95.1	97.5	102.1	105.3	110.3	106.4	111.8	108.2
	(4.4)	(5.4)	(12.5)	(18.1)	(16.0)	(9.1)	(9.5)	(2.8)
공업 제품	99.3	99.9	100.2	100.6	103.1	104.5	105.7	106.4
	(4.4)	(3.5)	(2.4)	(2.3)	(3.8)	(4.6)	(5.5)	(5.8)
서 비 스	99.4	99.8	100.3	100.6	101.7	102.6	103.2	103.3
	(2.0)	(1.8)	(1.8)	(1.9)	(2.3)	(2.8)	(2.9)	(2.7)
집 세	99.2	99.7	100.2	100.9	101.9	103.4	104.6	105.9
	(1.5)	(1.8)	(2.0)	(2.3)	(2.7)	(3.7)	(4.4)	(5.0)
공공서비스	100.0	99.9	100.1	100.1	100.1	99.5	99.6	99.1
	(1.9)	(1.5)	(0.8)	(0.7)	(0.1)	(-0.4)	(-0.5)	(-1.0)
개인서비스	99.1	99.8	100.4	100.7	102.3	103.7	104.3	104.5
	(2.2)	(2.0)	(2.2)	(2.3)	(3.2)	(3.9)	(3.9)	(3.8)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0년=100) 】

	2010			2011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1.1	100.6	101.0	104.7	104.8	105.2
상 품	102.0	100.8	101.5	106.6	106.8	107.3
농축수산물	109.4	103.3	103.3	108.4	106.8	109.3
공업 제품	100.2	100.2	101.3	105.9	106.6	106.7
서 비 스	100.4	100.6	100.7	103.2	103.3	103.5
집 세	100.6	100.9	101.2	105.5	106.0	106.3
공공서비스	100.1	100.1	100.0	99.1	98.9	99.2
개인서비스	100.5	100.7	100.8	104.5	104.4	104.6

자료: 통계청

- 2011년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2.8로 전분기 대비 0.1% 상승, 전년 동기대비 5.0% 상승함.

-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9로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 동월대비 4.3% 상승함.

- 12월 농림수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7.6으로 채소, 과실 및 축산물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4.4% 상승함.

- 12월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5.6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인해 화학제품과 1차금속제품 등의 가격이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함.

  - 서비스는 운수, 금융 및 기타서비스가 내려 전월대비 0.1% 하락함.

【 부문별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총 지 수	113.1	114.9	115.5	117.0	120.7	122.2	122.7	122.8
	(2.6)	(4.2)	(3.6)	(5.0)	(6.7)	(6.4)	(6.2)	(5.0)
농림수산품	115.5	116.8	121.9	125.8	139.8	124.6	128.1	123.2
	(0.3)	(2.2)	(11.7)	(23.7)	(21.0)	(6.7)	(5.1)	(-2.1)
광 산 품	141.1	140.5	141	140.6	141.2	141.8	143.3	145.7
	(16.1)	(13.9)	(12.6)	(3.8)	(0.1)	(0.9)	(1.6)	(3.6)
공 산 품	113.5	115.9	116.3	118.0	122.5	125.4	125.7	125.9
	(2.8)	(5.1)	(3.9)	(5.3)	(7.9)	(8.2)	(8.1)	(6.7)
전력/수도/가스	127.5	127.7	129.6	130.1	131.7	133.6	137.0	142.5
	(6.0)	(6.4)	(2.1)	(2.1)	(3.3)	(4.6)	(5.7)	(9.5)
서 비 스	109.2	109.6	109.9	110.4	111.3	112	112.0	111.8
	(1.9)	(1.6)	(1.3)	(1.8)	(1.9)	(2.2)	(1.9)	(1.3)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2010			2011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16.4	116.7	117.8	122.9	122.6	122.9
농림수산품	126.5	123.2	127.8	119.8	122.2	127.6
광 산 품	140.5	140.6	140.8	144.1	146.5	146.6
공 산 품	117.0	117.8	119.3	126.3	125.7	125.6
전력/수도/가스	131.9	129.2	129.3	141.7	141.1	144.8
서 비 스	110.3	110.5	110.5	112.0	111.8	111.7

자료: 한국은행

- 2011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13.0으로 전분기 대비 2.6%, 전년 동기대비 5.6% 상승함.

- 12월 수출물가지수는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한 112.4임.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 물가는 전월대비 0.8% 하락, 전년 동월대비 2.3% 상승함.

● 12월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74.1로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20.3% 상승함.

● 12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2.1로 1차 금속, 석유화학 등은 내렸으나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등 대부분 품목이 올라 전월대비 0.3%, 전년 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함.

【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05년=100)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총 지 수	104.0	106.8	107.9	107.0	110.9	110.5	110.2	113.0
	(-9.8)	(-1.6)	(-0.6)	(2.4)	(6.6)	(3.4)	(2.1)	(5.6)
농림수산품	124.4	140.1	144.4	141.8	149.8	155.8	166.7	176.4
	(-0.3)	(14.1)	(4.9)	(14.7)	(20.4)	(11.2)	(15.4)	(24.4)
공 산 품	103.9	106.6	107.7	106.8	110.7	110.2	109.9	112.7
	(-9.9)	(-1.7)	(-0.6)	(2.3)	(6.5)	(3.4)	(2.0)	(5.5)
원 자 재	132.9	151.7	157.4	151.3	159.8	165.6	175.7	185.6
	(-0.8)	(16.8)	(11.0)	(14.5)	(20.2)	(9.2)	(11.6)	(22.7)
자 본 재	107.2	107.1	108.9	104.5	103.6	102.0	102.1	185.6
	(-17.9)	(-12.3)	(-8.3)	(-7.2)	(-3.3)	(-4.8)	(-6.2)	(22.7)
소 비 재	86.8	87.6	88.8	85.1	84.9	83.4	83.7	107.2
	(-19.1)	(-12.0)	(-7.9)	(-6.1)	(-2.2)	(-4.8)	(-5.8)	(2.6)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출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2010			2011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05.0	106.3	109.6	114.7	112.0	112.4
농림수산품	139.1	141.5	144.8	181.2	173.8	174.1
공 산 품	104.9	106.1	109.4	114.4	111.7	112.1
원 자 재	148.4	150.2	155.5	189.3	182.9	184.7
자 본 재	104.1	103.8	105.4	108.2	106.2	107.0
소 비 재	84.8	84.4	86.2	88.9	87.3	87.9

자료: 한국은행

- 2011년도 4/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67.8로 전분기 대비 2.4%, 전년 동기대비 11.5% 상승함.

- 12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 7.1% 상승한 167.2임.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대비 1.0% 하락, 전년 동월대비 6.7% 상승함.
  - 원자재의 경우, 옥수수·천연고무·원면을 중심으로 농림수산품이 내리고 원유·유연탄을 중심으로 광산품도 내려 전월대비 0.5% 하락함.

- 12월 농림수산품 수입물가지수는 185.0으로 전월대비 3.8%, 전년 동월대비 7.0% 하락함.

【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05년=100)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총 지 수	137.9	144.4	147.2	150.5	161.2	164.9	163.8	167.8
	(3.2)	(8.1)	(7.0)	(9.7)	(16.9)	(14.2)	(11.3)	(11.5)
농림수산품	157.6	164.5	174.6	187.3	208.7	204.1	196.8	192.9
	(0.5)	(5.0)	(14.0)	(22.6)	(32.5)	(24.0)	(12.7)	(3.0)
공 산 품	124.9	128.6	130.7	132.4	136.8	135.7	135.2	137.6
	(-1.0)	(1.9)	(2.3)	(6.2)	(9.5)	(5.5)	(3.4)	(3.9)
원 자 재	171.2	185.1	189.7	197.3	224.2	240.5	238.0	246.0
	(12.5)	(21.6)	(16.5)	(16.2)	(30.9)	(29.9)	(25.5)	(24.7)
자 본 재	116.5	116.5	120.9	117.6	116.6	114.4	115.2	120.9
	(-9.3)	(-9.3)	(-3.8)	(-2.0)	(0.1)	(-1.8)	(-4.7)	(2.8)
소 비 재	124.4	126.3	127.6	127.0	128.0	127.3	126.6	130.8
	(-4.3)	(-2.9)	(-0.8)	(1.6)	(2.9)	(0.8)	(-0.8)	(3.0)

주: ( )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 월별 수입물가지수 변화추이(2005년=100) 】

	2010			2011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총 지 수	146.1	149.2	156.1	169.5	166.8	167.2
농림수산품	181.3	183.9	196.7	202.1	191.6	185.0
공 산 품	129.2	131.7	136.3	140.0	136.0	137.0
원 자 재	189.9	194.4	207.5	245.8	246.8	245.5
자 본 재	117.6	117.1	118.2	122.6	119.7	120.5
소 비 재	124.9	126.1	130.1	132.0	129.8	130.7

자료: 한국은행

5. 금융·환율

- 2011년 3/4분기 협의통화(M1,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함.

- 2011년 11월중 협의통화(M1,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전월 4.1%에서 2.0%로 하락함.
  - 기저효과에 따른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의 증가세 둔화에 기인함.

- 2011년 11월중 광의통화(M2, 평잔)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은 4.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임.

-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전월 6.1%보다 소폭 오른 6.2% 상승을 기록함.

【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9	2010					2011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M1[1]	16.3	11.8	14.5	10.7	10.8	11.3	11.9	7.4	4.8
M2[2]	10.3	8.7	9.4	9.5	8.6	7.4	5.2	3.5	3.8
Lf[3]	7.9	8.2	8.5	9.1	8.2	7.1	5.5	4.3	5.3
본원통화[4]	18.1	9.5	2.3	9.6	13.9	12.5	12.5	11.8	11.3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 2011년 12월중 국고채(3년)금리는 대체로 3.33%~3.42% 수준에서 등락하면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승하여 금년 1.11일 현재(3.38%)와 비슷한 수준임.
  -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지속과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둔화 전망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기준금리와의 격차 축소에 따른 가격부담과 지정학적 리스

크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외국인의 국내채권 순매수가 확대됨.

● CD(91일) 금리는 계속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는 8월 이후 약보합세를 보임.

【 금 리 동 향 】

단위: %

	2011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3년)	3.74	3.66	3.65	3.77	3.57	3.45	3.47	3.39	3.36
콜 금 리[1]	3.01	3.02	3.20	3.26	3.25	3.25	3.24	3.26	3.26
CD유통수익률(91일)	3.40	3.46	3.53	3.59	3.59	3.58	3.58	3.56	3.55
회 사 채[2]	4.54	4.44	4.40	4.48	4.29	4.24	4.29	4.24	4.24

주 1.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2. 회사채: 장외3년, AA-등급
자료: 한국은행

● 12월말 원/달러 환율은 1,159원으로 전 월말 종가인 1,146원 보다 13원 상승함.

- EU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부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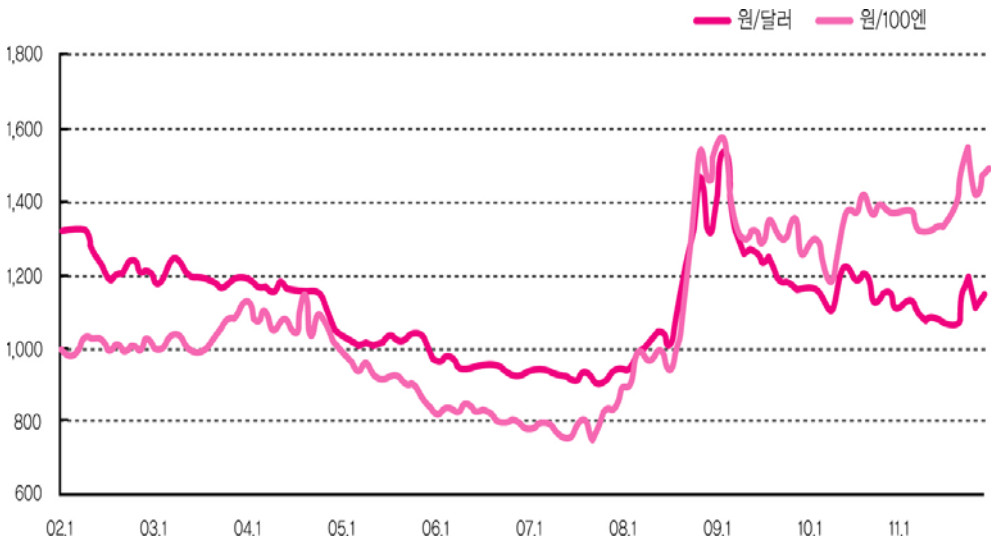
● 12월말 원/100엔 환율은 유로존에 대한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엔화 강세가 지속되어 11월말 대비 24원 상승한 1,493원을 기록함.

【 원화 환율 동향 】

	201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22	1,128	1,097	1,069	1,079	1,068	1,054	1,066	1,179	1,107	1,146	1,159
원/100엔	1,366	1,379	1,324	1,312	1,322	1,328	1,358	1,392	1,534	1,417	1,469	1,493

주: 기말 고시 환율 기준
자료: 외환은행

【 원화 환율 추세 】


원/달러
원/100엔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11.1

Ⅱ. 농촌경제 동향[2)]

1. 농산물 물가지수

1.1. 생산자물가지수

- 2011년 11월 식료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로 전년 동월보다 3.0% 상승하였으며, 2011년 10월보다는 1.3% 상승함.
  - 식료품 중 특히 곡물류가 전년 동월대비 17.9%로 크게 상승하였고, 축산물 13.9%, 낙농품 7.7% 등 대부분의 품목이 상승함.
  - 농업용품인 비료는 전년 동월대비 3.7%, 농약은 0.9% 하락한 반면에 사료는 13.8%, 농업용 기계는 6.6% 상승함.

【생산자물가지수(2005년=100)】

	2010		2011		등락률(%)	
	10월	11월	10월	11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식료품	126.8	124.7	126.8	128.4	3.0	1.3
식료품(이외)	115.5	115.9	122.6	122.1	5.3	-0.4
곡물	83.7	89.7	101.5	105.8	17.9	4.2
채소	211.2	175.5	149.9	139.5	-20.5	-6.9
과실	136.1	137.2	109.6	109.1	-20.5	-0.5
축산물	108.5	109.6	114.0	124.8	13.9	9.5
육가공품	156.4	156.8	164.9	165.8	5.7	0.5
과실채소가공품	144.8	139.5	143.8	142.2	1.9	-1.1
낙농품	126.6	126.6	132.1	136.3	7.7	3.2
사료	177.1	177.1	200.3	201.6	13.8	0.6
비료	177.8	171.4	165.1	165.1	-3.7	0.0
농약	124.6	124.6	123.5	123.5	-0.9	0.0
농업용 기계	125.2	125.2	133.5	133.5	6.6	0.0

자료: 통계청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재환 부연구위원(jhhan@krei.re.kr), 조우림(urimcho@krei.re.kr), 승준호(jhseung@krei.re.kr)연구원이 작성하였음.

1.2. 소비자물가지수

- 2011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기 대비 0.2% 상승하였으나, 농축수산물은 전기 대비 3.2% 하락함.

- 농산물의 경우, 채소, 과실 등이 하락하여 전기 대비 2.7%, 축산물은 전기 대비 6.5% 하락함.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2010		2011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기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100.4	100.9	104.7	104.9	4.0	0.2
농축수산물	102.1	105.3	111.8	108.2	2.8	-3.2
농산물	102.8	109.2	112.0	109.0	-0.2	-2.7
곡물	99.2	102.1	112.7	118.3	15.9	5.0
채소	105.2	113.9	104.3	89.1	-21.8	-14.6
과실	103.4	108.6	115.9	113.0	4.1	-2.5
기타농산물	95.9	105.3	132.4	172.2	63.5	30.1
축산물	102.3	99.3	113.3	105.9	6.6	-6.5
수산물	99.4	102.3	108.4	109.2	6.7	0.7

자료: 통계청

1.3. 농산물 도매가격지수

- 2011년 4/4분기 농산물 도매가격지수는 배추, 무, 마늘(난지)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지난 3/4분기보다 크게 하락하여 약세를 보인 반면, 쌀은 상승함.

【농산물 도매가격지수(2010년=100)】

	2010		2011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기 대비
쌀	96.8	101.2	99.9	123.1	21.6	23.1
보리(과맥)	102.6	104.3	116.7	114.3	9.6	-2.1
배추	126.4	118.5	171.9	42.0	-64.6	-75.6
무	118.3	121.3	190.2	41.3	-66.0	-78.3
고추(화건)	93.8	142.5	245.4	233.7	64.0	-4.8
마늘(난지)	126.9	135.5	169.6	82.3	-39.3	-51.5
양파	76.0	81.6	127.0	67.1	-17.8	-47.1
사과(후지)	94.2	127.5	113.6	113.9	-10.7	0.2
배(신고)	95.7	110.4	195.3	108.7	-1.5	-44.3
느타리	111.0	96.5	129.9	96.5	0.0	-25.7
참깨	97.0	109.3	130.6	112.5	3.0	-13.9
국화	86.9	81.1	88.1	77.6	-4.3	-11.9

주: 전국도매시장의 품목별 단위별 가격 자료를 2005년을 기준으로 지수화 하였음.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 2011년 4/4분기 곡물 가격 중 쌀 가격은 전분기보다 23.1% 상승하였으나, 보리는 2.1% 하락함.

- 2011년 4/4분기 배추, 무의 도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반면 고추(화건)는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보다는 하락함.

- 2011년 4/4분기 과일 중 배(신고)의 도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1.5%, 전분기 대비 44.3%로 크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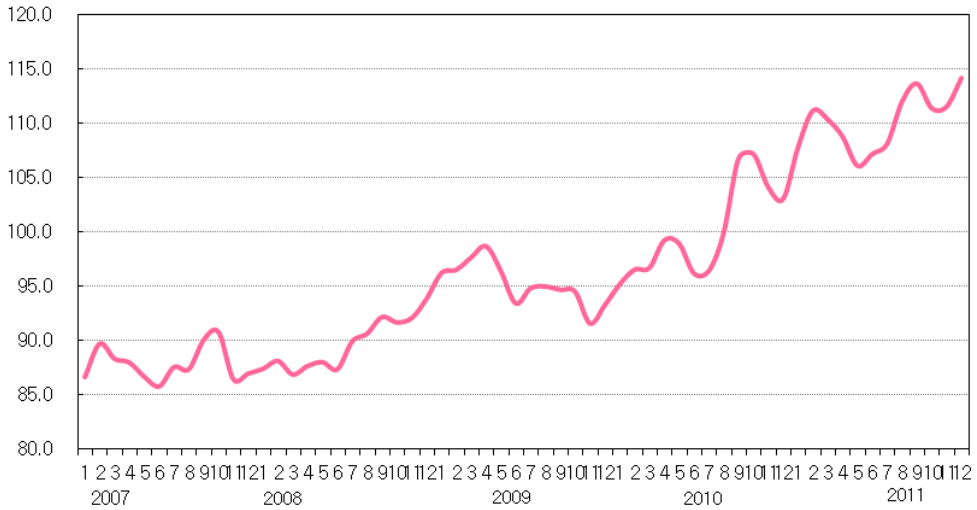
1.4. 농산물 체감물가지수[3)]

- 2011년 4/4분기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2.3으로 전년 동기대비 7.2%, 전분기 대비 1.0% 상승함.

3)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28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 12월 농산물 체감물가지수는 114.1로 전월대비 2.4% 상승하였으며, 닭고기, 시금치, 상추, 오이, 감자 등은 전월대비 상승하였으나, 귤, 무, 당근 등은 하락함.

【 농산물 체감물가지수 추이(2010년=100) 】



【주요품목 생활물가지수(2010년=100)】

	2010		2011		등락률(%)	
	3/4분기	4/4분기	3/4분기	4/4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쌀	98.4	100.2	111.4	119.1	18.9	6.9
쇠고기(국산)	99.7	98.6	87.3	89.1	-9.6	2.1
돼지고기	106.4	98.6	138.8	119.7	21.4	-13.8
사과	101.0	111.6	123.3	116.3	4.2	-5.7
무	110.7	124.2	99.5	47.7	-61.6	-52.1
배추	119.4	142.8	118.5	55.5	-61.1	-53.2
파	109.2	87.0	94.4	105.2	20.9	11.4
양파	84.6	135.6	97.9	110.7	-18.4	13.1
오이	99.5	145.6	64.8	56.9	-60.9	-12.2
토마토	92.5	104.6	84.2	87.1	-16.7	3.4
마늘	118.6	130.6	115.3	109.3	-16.3	-5.2

자료: 통계청

1.5.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

- 2011년 4/4분기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는 102.7로 전년 동기 대비 6.0%, 전분기 대비 6.3% 하락함.
  - 신선채소는 무, 배추, 양배추 등이 비교적 크게 하락하여 전분기 대비 15.5% 하락함.
  - 신선과실은 사과, 배 등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2.5% 하락함.

【신선식품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2010		2011		등락률(%)	
	3/4분기	4/4분기	3/4분기	4/4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비
신선식품	103.1	109.3	109.6	102.7	-6.0	-6.3
신선어개	98.9	102.2	108.3	109.1	6.8	0.7
신선채소	104.0	112.7	103.5	87.5	-22.4	-15.5
무	110.7	124.2	99.5	47.7	-61.6	-52.1
배추	93.3	174.8	84.6	73.6	-57.9	-13.0
양배추	119.4	142.8	118.5	55.5	-61.1	-53.2
오이	105.2	99.3	108.9	105.8	6.5	-2.8
토마토	109.2	87.0	94.4	105.2	20.9	11.4
버섯	84.6	135.6	97.9	110.7	-18.4	13.1
신선과실	103.4	108.6	115.9	113.0	4.1	-2.5
사과	101.0	111.6	123.3	116.3	4.2	-5.7
배	105.0	110.9	125.7	107.7	-2.9	-14.3
귤	97.6	115.5	119.2	118.5	2.6	-0.6
기타신선	118.3	127.3	113.1	106.9	-16.0	-5.5

자료: 통계청

1.6. 장바구니 물가지수[4)]

- 2011년 4/4분기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쌀, 쇠고기, 양파, 토마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전분기 대비 하락하여 약세를 나타냄.
  - 돼지고기는 수입 돼지고기 재고 누적과 육가공업체의 국산 돼지 작업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하락함.
  - 채소류 중 배추는 가을배추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52.1% 하락함.

【 장바구니 물가지수 추이(2005년=100) 】

	2010		2011		등락률(%)	
	3/4분기	4/4분기	3/4분기	4/4분기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쌀	98.4	100.2	111.4	119.1	18.9%	6.9%
쇠고기(국산)	99.7	98.6	87.3	89.1	-9.6%	2.1%
돼지고기	106.4	98.6	138.8	119.7	21.4%	-13.8%
닭고기	100.4	92.6	103.0	99.3	7.2%	-3.6%
사과	101.0	111.6	123.3	116.3	4.2%	-5.7%
배추	110.7	124.2	99.5	47.7	-61.6%	-52.1%
양파	84.6	135.6	97.9	110.7	-18.4%	13.1%
토마토	92.5	104.6	84.2	87.1	-16.7%	3.4%
마늘	118.6	130.6	115.3	109.3	-16.3%	-5.2%
평균물가	101.4	110.7	106.7	99.8	-9.9%	-6.5%

자료: 통계청

4) 통계청에서 체감물가지수로 발표하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 주요 농축산물 9개 품목만으로 구성한 물가지수임.

2. 농림어업 취업자

- 2011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21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하였고, 전분기 대비 10.7% 줄어듦.
  - 남성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기 대비 9.5% 감소한 839천명이었고, 여성은 12.1% 감소한 682천명임.

【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0		2011		증감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취업자	전산업	24,120	23,989	24,483	24,462	2.0%	-0.1%
	농림어업	1,754	1,544	1,704	1,521	-1.5%	-10.7%
	남성	968	869	927	839	-3.5%	-9.5%
	여성	787	674	776	682	1.2%	-12.1%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수 변화추이 】

● 2011년 4/4분기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는 1~17시간 취업자수가 전분기 대비 10.3%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수는 전분기 대비 4.8% 감소하였음.

- 일시휴직자는 22천명으로 전분기 대비 12.0% 감소하였고, 주당 평균시간은 36.8시간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함.

【 농림어업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동향 】

단위: 천명, %

	2010		2011		증감률	
	3/4	4/4	3/4	4/4	전년 동기대비	전분기 대 비
전체	1,754	1,544	1,704	1,521	-1.5%	-10.7%
1~17시간	110	174	156	172	-1.1%	10.3%
18~35시간	382	354	540	391	10.5%	-27.6%
36시간 이상	1,243	996	982	935	-6.1%	-4.8%
일시 휴직	19	20	25	22	10.0%	-12.0%
주당 평균시간	41.3	38.3	36.3	36.8	-3.9%	1.4%

자료: 통계청

3. 농축수산물 수출입

3.1. 수출동향

- 2011년 1~11월 농림축수산물의 수출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6,558 백만 달러임.

- 농산물 수출액은 사과 외에 단감, 감귤 등 과실류와 커피조제품, 비스킷, 라면 등 가공식품 증가폭이 커 전년 동기대비 24.5% 증가함.

- 축산물 수출액은 우유조제품 수출이 감소한 반면, 소고기, 돼지고기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24.8% 증가함.

- 수산물 수출액은 참치, 김, 고등어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28.2% 증가한 2,076 백만 달러를 기록함.

【 농림축수산물 수출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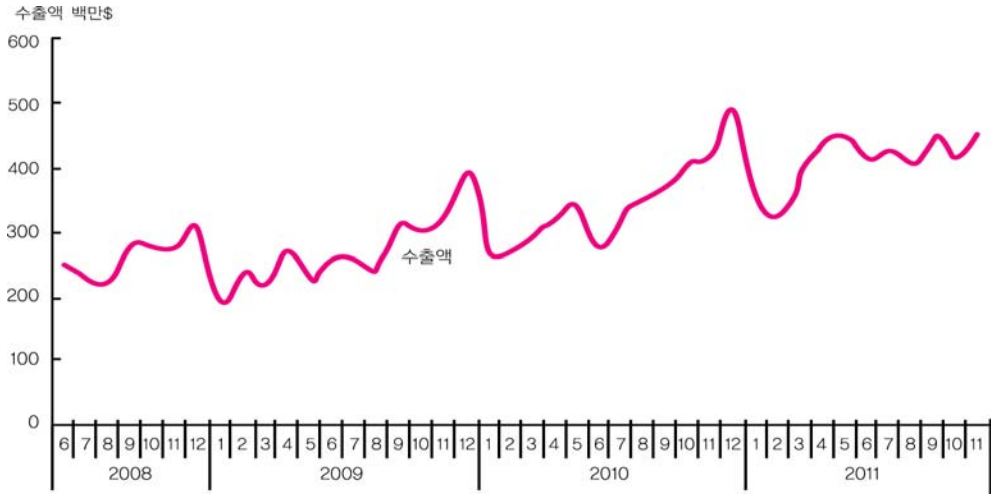
단위: 천톤, 백만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2,084	3,593	2,338	4,482	12.2	24.7
농 산 물	1,874	3,269	2,107	4,071	12.4	24.5
축 산 물	51	127	58	158	12.4	24.8
임 산 물	159	197	173	253	9.1	28.4
수 산 물	581	1,619	620	2,076	6.7	28.2
전 체	2,665	5,212	2,958	6,558	11.0	25.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1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커피조제품, 김, 파프리카 등 주력품목의 선전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9.0%, 전월 대비 9.4%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



3.2. 수입동향

- 2011년 1~11월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총 29,953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8.8% 증가함.

【 농림축수산물 수입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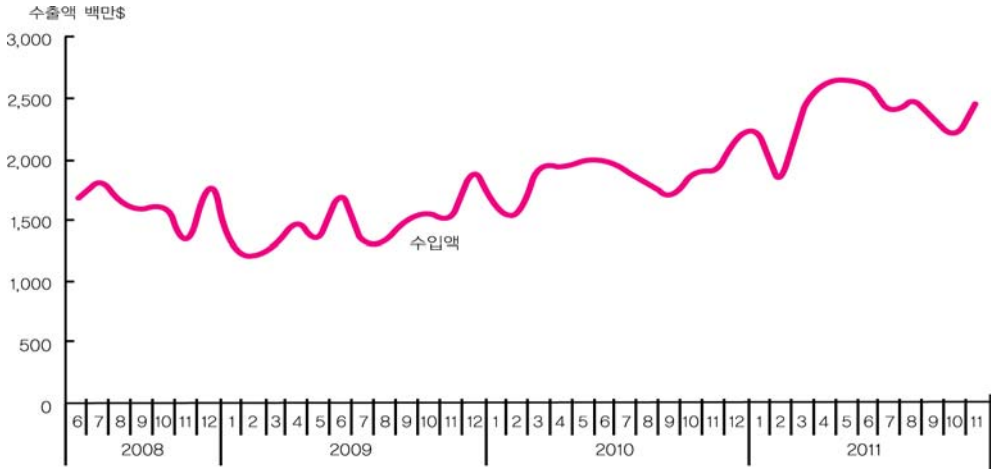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8,703	20,179	39,052	26,166	0.9	29.7
농 산 물	26,226	12,603	26,498	16,452	1.0	30.5
축 산 물	956	2,799	1,303	4,629	36.2	65.4
임 산 물	11,520	4,776	11,251	5,085	-2.3	6.5
수 산 물	4,278	3,081	4,426	3,787	3.5	22.9
전 체	42,980	23,260	43,479	29,953	1.2	28.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1월 농림축산물 수입액 전년 동월대비 28.5%, 전월 대비 12.0% 증가함.

【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



3.3. 국가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11월 중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1,052 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2.1%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329,313	489,813	370,047	637,160	12.4	30.1
농 산 물	238,188	387,902	313,316	542,133	31.5	39.8
축 산 물	2,880	20,108	5,345	34,028	85.6	69.2
임 산 물	88,246	81,804	51,386	60,999	-41.8	-25.4
수 산 물	94,851	201,950	134,643	414,966	42.0	105.5
합 계	424,164	691,764	504,691	1,052,126	19.0	52.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화훼류와 버섯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곡류 44.4%, 과실류 32.5%, 낙농품이 75.1% 등으로 크게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1,550	1,630	1,996	2,353	28.8	44.4
과실류	20,566	24,508	21,551	32,473	4.8	32.5
채소류	975	6,054	987	6,080	1.2	0.4
화훼류	1,991	12,383	976	7,091	-51.0	-42.7
버섯류	4,444	5,388	1,958	3,194	-55.9	-40.7
낙농품	1,534	13,426	2,590	23,511	68.8	75.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11월중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함. 특히, 농산물과 임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272,845	2,877,562	5,589,902	3,483,362	6.0	21.1
농 산 물	2,585,840	1,712,144	2,935,466	2,089,533	13.5	22.0
축 산 물	16,666	48,336	18,904	55,258	13.4	14.3
임 산 물	2,670,339	1,117,082	2,635,532	1,338,572	-1.3	19.8
수 산 물	1,010,420	973,800	1,044,264	1,135,520	3.4	16.6
합 계	6,283,264	3,851,363	6,634,166	4,618,882	5.6	19.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11월 일본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1,196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1.9% 증가함. 이는 한류 및 연초 지진발생 효과 등으로 참치, 김치, 파프리카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채소류 중 마늘, 양배추, 양파, 오이 등은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으나, 무, 호박 등의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함.
- 화훼류는 장미, 국화, 선인장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8% 감소함.

【 대일본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585,163	907,090	792,019	1,196,075	35.4	31.9
곡류	8,510	6,756	10,105	9,657	18.7	42.9
과실류	8,290	16,891	9,264	23,057	11.8	36.5
채소류	43,463	151,275	42,273	170,046	-2.7	12.4
화훼류	7,203	64,393	6,447	63,224	-10.5	-1.8
버섯류	620	1,641	703	2,332	13.5	42.1
낙농품	1,791	6,736	1,662	7,018	-7.2	4.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11월중 일본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함. 특히, 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88,282	395,012	167,183	400,502	-11.2	1.4
농 산 물	102,559	310,853	89,447	330,766	-12.8	6.4
축 산 물	1,174	13,034	1,625	14,840	38.4	13.9
임 산 물	84,548	71,124	76,111	54,895	-10.0	-22.8
수 산 물	73,565	194,643	50,857	155,554	-30.9	-20.1
합 계	261,847	589,654	218,040	556,056	-16.7	-5.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대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11월 미국으로의 농림축산물 수출은 366 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함. 이는 난초, 선인장을 중심으로 화훼류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과실류는 유자, 감귤, 사과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함.
- 채소류 중 상치, 호박 등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나, 고추 마늘 등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4.4% 감소함.
- 버섯류는 느타리버섯 등 대부분 품목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5.8% 감소함.

【 대미국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45,354	332,153	150,880	365,821	3.8	10.1
곡류	5,142	6,815	5,062	6,922	-1.6	1.6
과실류	15,556	28,083	14,307	29,747	-8.0	5.9
채소류	9,337	20,112	3,764	15,207	-59.7	-24.4
화훼류	110	1,255	139	1,817	26.4	44.8
버섯류	3,131	5,539	2,633	5,218	-15.9	-5.8
낙농품	3,541	3,355	3,751	3,925	5.9	17.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11월중 미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물량 기준으로 10.6% 감소하였으나, 금액기준으로는 30.2% 증가함. 특히, 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096,169	5,281,071	10,811,401	6,874,137	-10.6	30.2
농 산 물	10,942,111	3,939,476	9,531,101	4,742,464	-12.9	20.4
축 산 물	312,292	822,369	481,636	1,561,728	54.2	89.9
임 산 물	841,766	519,226	798,665	569,946	-5.1	9.8
수 산 물	44,906	116,710	50,117	142,183	11.6	21.8
합 계	12,141,075	5,397,781	10,861,518	7,016,320	-10.5	30.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입동향

- 2011년 1~11월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은 219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9.6% 증가함.
  - 과실류는 과즙음료, 감귤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57.0% 증가함.
  - 채소류 중 김치, 고추, 오이 등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였으나, 무, 채소종자 등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41.7% 감소함.
  - 화훼류는 선인장, 기타 절화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28.7% 감소함.

【 대EU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03,613	183,470	97,754	219,396	-5.7	19.6
곡류	545	1,014	888	1,411	62.9	39.1
과실류	1,659	1,459	2,223	2,291	34.0	57.0
채소류	6,892	8,166	910	4,765	-86.8	-41.7
화훼류	340	1,767	124	1,259	-63.6	-28.7
버섯류	786	3,360	1,189	5,564	51.2	65.6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1~11월 중 EU로부터의 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43.2% 증가함. 특히,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함.

【 대EU 농림축수산물 수입동향 】

단위: 천 kg, 천 달러

구 분	2010. 1~11		2011. 1~11		증감률 (%)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26,940	1,662,165	1,125,538	2,397,570	-8.3	44.2
농 산 물	845,781	1,039,326	561,538	1,199,398	-33.6	15.4
축 산 물	156,693	478,410	291,672	1,017,851	86.1	112.8
임 산 물	224,466	144,429	272,328	180,321	21.3	24.9
수 산 물	19,258	73,744	17,901	88,555	-7.0	20.1
합 계	1,246,198	1,735,910	1,143,440	2,486,125	-8.2	43.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 국제곡물 가격 동향 및 조기경보지수

4.1. 국제곡물 가격 동향

-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로 곡물 선물 투기가 크게 감소하면서 2011년 하반기 들어 국제곡물 선물가격은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12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12월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은 각각 톤당 222달러, 236달러, 419달러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며, 기말재고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는 옥수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곡물 선물가격 동향 】

단위: 달러/톤, %

	'08	'09	'10	2011			전년 대비	전월 대비
				10월	11월	12월		
밀	294	195	213	230	225	222	4.2	-1.3
옥수수	208	147	168	249	247	236	40.5	-4.5
대두	458	378	385	446	429	419	8.8	-2.3

주: 회계 연도 기준,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

4.2. 국제곡물 수급 전망

- 구소련 지역의 밀 생산이 회복되어 2011/12년 세계 밀 생산량은 6억 8,897만 톤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할 전망이며, 소비량은 6억 8,020만 톤으로 예상됨. 생산량 증가로 2011/12년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2010/11년 대비 0.2%p 상승한 30.7%로 전망됨.

- 2011/12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8억 6,752만 톤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할 전망임. 이는 옥수수 최대 생산국인 미국은 기상악화에 따른 수확면적과 단수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생산국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임. 그러나 세계 옥수수 소비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2011/12년 세계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14.6%로 2010/11년 대비 0.6%p 하락할 전망임.

- 미국, 중국의 대두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12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5,922만 톤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할 전망임. 한편, 대두 소비량은 2억 6,009만 톤으로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2.4%p 하락한 24.8%로 전망됨.

【 국제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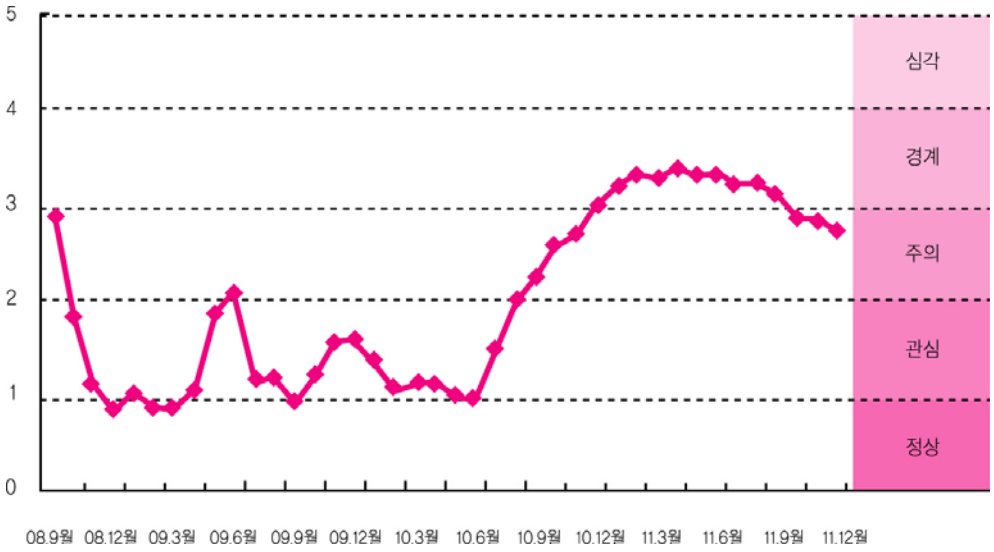
		2009/10	2010/11(추정)	2011/12(전망)	전년대비(%)
밀	생산량	685.44	651.58	688.97	5.7
	소비량	650.34	653.97	680.20	4.0
	교역량	135.80	131.90	138.69	5.1
	기말재고량	202.14	199.75	208.52	4.4
	기말재고율(%)	31.1	30.5	30.7	
옥수수	생산량	819.23	827.56	867.52	4.8
	소비량	822.50	843.37	868.61	3.0
	교역량	96.82	90.45	94.74	4.7
	기말재고량	144.08	128.27	127.19	-0.8
	기말재고율(%)	17.5	15.2	14.6	
대두	생산량	260.85	264.18	259.22	-1.9
	소비량	238.24	251.27	260.09	3.5
	교역량	92.55	92.42	96.99	4.9
	기말재고량	59.45	68.43	64.54	-5.7
	기말재고율(%)	25.0	27.2	24.8	

자료: USDA, WASDE-501, December 9, 2011.

4.3.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5)]

- 밀, 옥수수, 대두 선물가격이 하락하고 곡물 선물투기가 감소함에 따라 2011년 12월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는 2.72로 전월대비 하락함.
  - 조기경보지수: (11.1)3.18→(11.2)3.30→(11.3)3.24→(11.4)3.43→(11.5)3.30→(11.6)3.30→(11.7)3.22→(11.8)3.25→(11.9)3.15→(11.10)2.85→(11.11)2.84→(11.12)2.72

【 곡물부문 조기경보지수 】



주: 해당 월의 지수는 향후 6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위험수준을 나타냄.

- 국제유가가 상승하였으나 곡물 선물가격 하락, 밀, 옥수수, 대두 기말재고율 전망치 상승, 곡물 선물투기 감소로 대부분의 설명 변수가 안정신호를 보임에 따라 12월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전월대비 0.12p 하락함.

5) 국제곡물 조기경보지수는 곡물 수입액과 수입단가를 가중 평균하여 위기 지수를 구성하고, 선행변수들(국제곡물 선물가격, 곡물 재고율, 국제원유 선물가격, 곡물 순매수포지션)을 설정 한 후, 신호접근법(Signal Approach)을 이용하여 산출된 N/S비율(Noise-Signal Ratio)을 가중치로 사용, 선행변수들을 취합하여 만든 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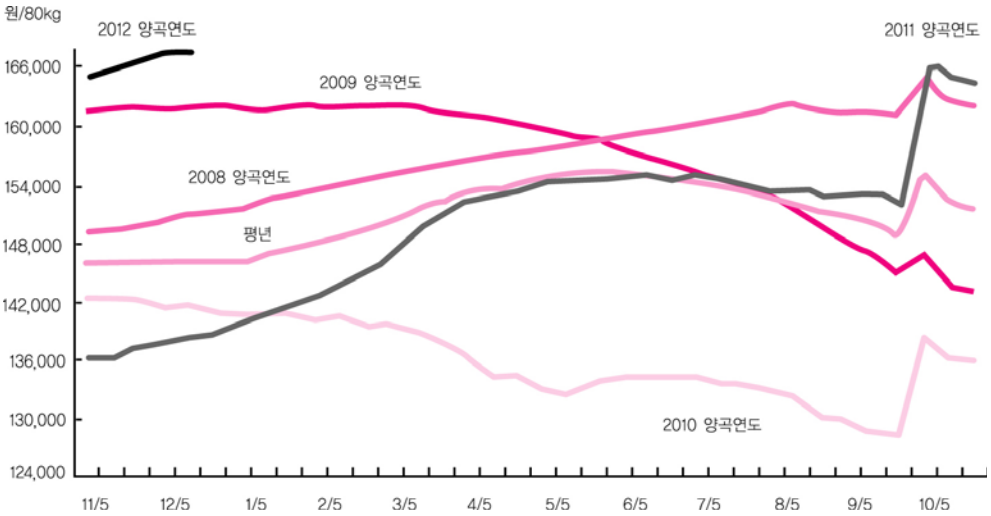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6)]

1.1. 쌀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산지 쌀 가격 추이 】



- 2011년 하반기 동향
  -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농가의 출하 지연으로 2011년 10월 말 이후 산지 벼 가격과 산지 쌀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어 수확기 사상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2월 15일 산지 쌀 가격은 16만 7,348원/8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20.8% 상승하였으나, 12월 들어 출하를 기피해 왔던 농가들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둔화 추세에 있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한석호 부연구위원(shohan@krei.re.kr), 승준호 연구원(jhseung@krei.re.kr), 박미성 연구원(mspark@krei.re.kr), 김대석 연구원(sorihunt@krei.re.kr)이 작성하였음.

● 2012년 상반기 전망

- 201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곡 수급 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농가들의 벼 출하가 정상화 될 경우 2012년 상반기 쌀 가격은 현 수준의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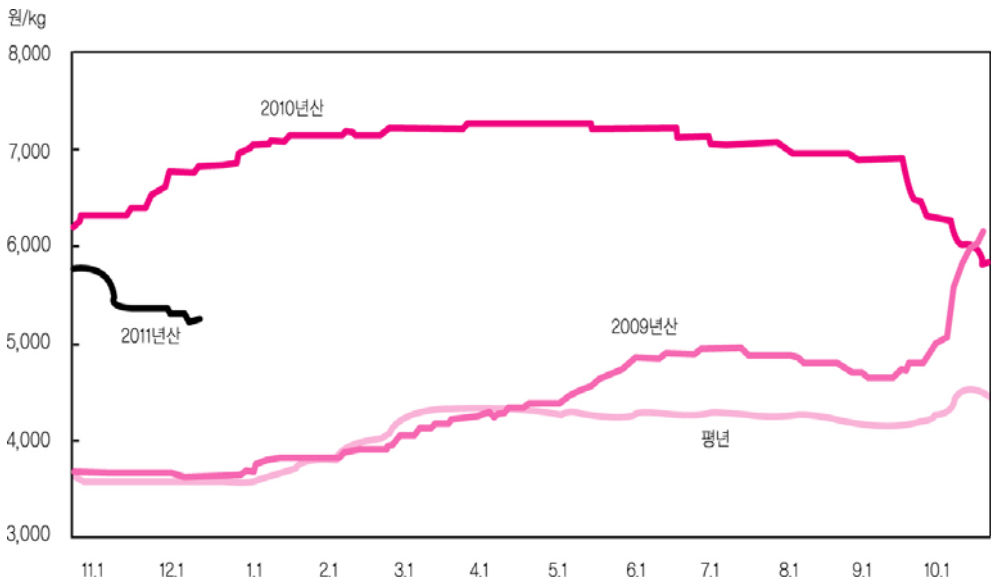
나. 대책 방향

● 산지 쌀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파악하여 필요 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1.2. 콩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국산콩(백태상품)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 하반기 동향

- 12월(23일까지) 국산콩 도매가격은 5,328원/kg으로 전월대비 4.5%, 전년대비 20.7% 낮으나, 평년대비 54.1% 높은 수준임.
- 2011년도 1~11월 일반 콩 수입량은 23만 1,194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전망

- 2011년산 콩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9% 증가한 7만 7,849ha이며, 2011년산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22.8% 증가한 12만 9천 톤임.
- 2011년산 콩나물 콩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3% 감소하고 단수도 감소하여 금년 콩나물 콩 생산량은 전년대비 18.1% 감소한 1만~1만 1천 톤으로 추정됨.

나. 대책 방향

● 콩나물 콩 재배면적의 감소와 단수의 감소로 인해 콩나물 콩 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임. 따라서 콩나물 콩 가격상승에 따른 시장 혼란 예방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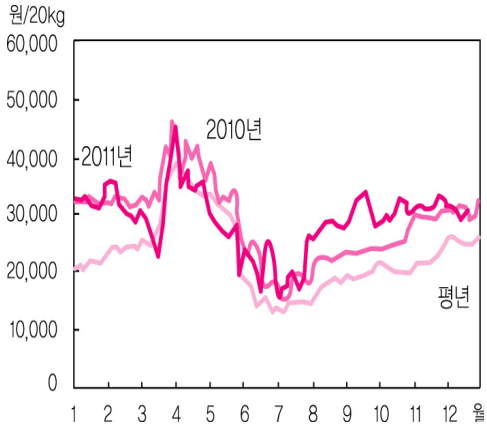
- 2010년산 정부비축 콩 수매실적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2011년산 정부비축 수매량 확대 검토가 필요함.
- 국산 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국산콩 안전성 홍보 등을 위한 자조금 사업 등을 검토해야함.

● TRQ물량을 비롯한 수입산 식용 콩에 대한 시장 출하를 차후 작황 및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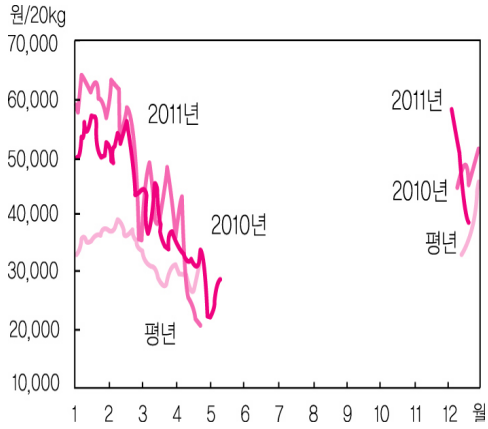
1.3. 감자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수미 도매가격 추이 】



【 대지 도매가격 추이 】



주: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하반기 동향
  - 2011년산 고랭지감자의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가을감자의 생산량 증가와 수입생감자 및 감자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가격상승폭이 감소하였음. 12월 23일 기준 수미 평균도매가격은 3만 625원/20kg으로 전년 동월보다 0.6% 낮은 수준임.
  - 제주지역 대지의 생육초기 기상여건이 좋아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후기 기상악화로 바이러스(더듬이병, 갈라짐 현상)가 발생하여 중·하품의 출하비율이 증가하였음. 학교방학 및 연말연시 수요 감소 등으로 대지 12월 23일 기준 평균도매가격은 4만4,11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8% 하락하였음.

- 2012년 상반기 전망
  - 봄(시설)감자와 봄(노지)감자의 재배의향면적은 종서가격의 상승과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봄(시설)감자의 경우 시설작물의 가격하락이 계속될 경우 감자로 작목전환이 이루어져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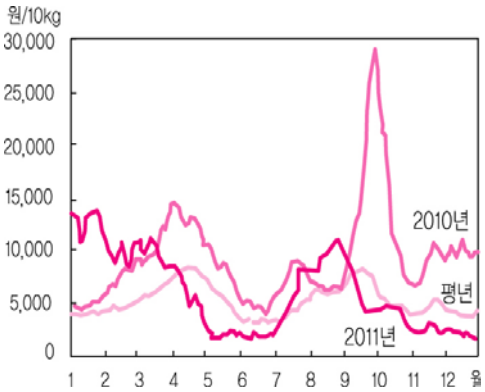
나. 대책 방향

- 종서의 안정적 보급을 통해 농가의 생산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여 농가소득 및 국내 감자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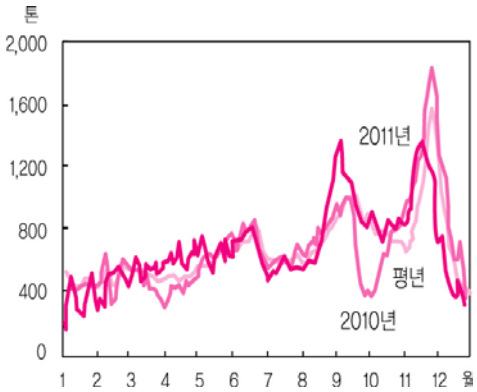
2. 엽근채소[7)]

2.1. 배 추

【 배추 도매가격 동향 】



【 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5~2009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4/4분기의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8%, 23% 증가하였으며, 단수도 기상이 좋아 작년보다 25%, 평년보다 13% 늘었음. 금년 가을배추 생산량은 189만 7천 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60%, 38% 증가하였음.
- 작년과 평년 대비 가을배추 생산량 증가로 3/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70%, 평년 동기보다 29% 하락하였음.

  * (2011) 3,160원/10kg, (2010) 10,610원/10kg, (평년) 4,470원/10kg

● 2012년 1/4분기 전망

- 1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겨울배추 생산량은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작년보다 26%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8% 감소한 33만 5천 톤으로 추정됨.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가을배추 정식의향 증가와 정식기 가격 하락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2% 감소한 4,621ha임.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서대석 부연구위원(dssuh@krei.re.kr), 류상모(lesamang@krei.re.kr), 한승용(han0309@krei.re.kr), 심민희(min2727@krei.re.kr), 공민지(eyebrow-m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겨울배추 단수는 정식 후 기상이 좋아 작황이 나빴던 작년보다 42% 증가하고, 평년보다 5% 증가한 7,259kg/10a로 추정됨.

- 1/4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저장량과 겨울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50%, 평년보다 10% 이상 낮을 전망임.

* 1월 배추 가격은 출하 지연된 가을배추 물량과 저장량 증가로 출하량이 평년 대비 29% 늘어나 작년보다 70%, 평년보다 20% 이상 낮을 전망임.

* 2~3월 배추 가격도 겨울배추 출하 지연으로 출하량이 작년과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평년보다 낮을 전망임.

● 2012년 봄배추 재배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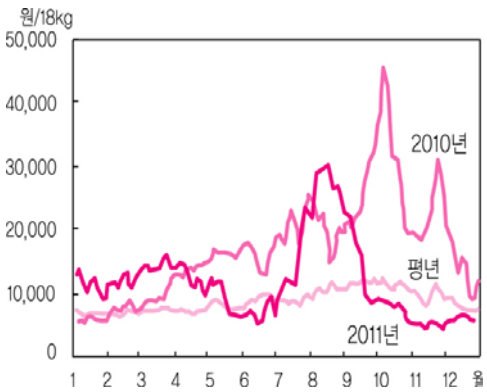
- 2012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금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작년보다 26%, 평년보다 13% 감소한 9천 여 ha로 추정되며, 평년 단수를 적용할 경우 추정생산량은 40만 3천 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39%, 14% 감소할 전망임.

* 시설봄배추 재배의향면적: 3,115ha(작년대비 35%, 평년대비 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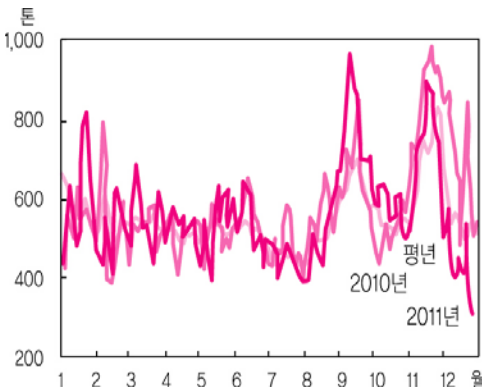
* 노지봄배추 재배의향면적: 5,899ha(작년대비 19%, 평년대비 17% 감소)

2.2. 무

【 무 도매가격 동향 】



【 무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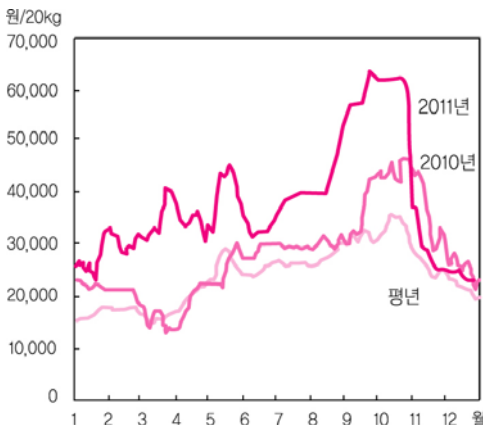
- 가을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22% 증가함.
  * 단수는 평년과 비슷하나 재배면적이 21% 증가하였음.
- 4/4분기 무 도매가격은 가을무 생산량 증가로 평년보다 34% 낮은 수준임.
  * (금년) 6,270원/18kg, (작년) 23,230원, (평년) 9,520원

● 2012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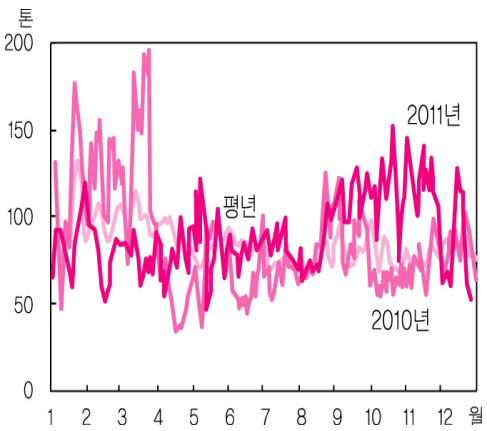
- 월동무 생산량은 평년보다 31% 증가할 전망임.
  *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평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월동무 단수는 작년보다 20%, 평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2012년도 1/4분기 무 도매가격은 작년과 평년보다 낮을 전망임.
  * 1월 무 도매가격은 작년 대비 42% 이상, 평년 대비 4% 이상 하락할 전망임.
  * 2~3월 무 도매가격은 월동무 생산량 증가로 평년 대비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2.3. 당 근

【 당근 도매가격 동향 】



【 당근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3/4분기 도매가격은 고랭지당근 작황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10월 한 달간 상품 20kg당 6만원을 웃돌며 상승세를 지속함. 11월 이후 가을당근의 본격적인 출하와 겨울당근의 이른 출하가 일부 이어지면서 점차적인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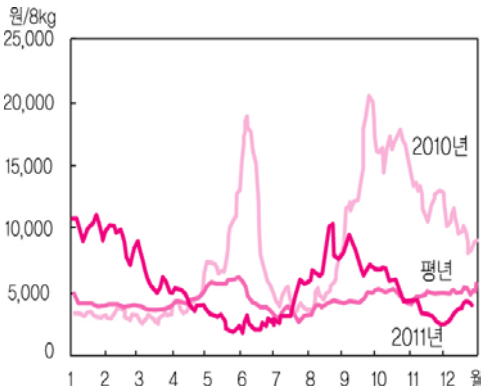
  * 3/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3만 8,89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7%, 45% 상승한 수준임.

● 2012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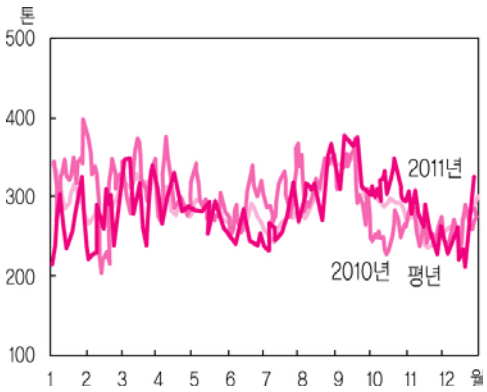
- 2011년 산 겨울당근 생산량이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0%, 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어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만 8,000~2만 2,000원으로 평년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4. 양배추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



【 양배추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도매가격은 고랭지양배추 출하가 10월 중순까지 지속되고, 10월 중순 이후 가을양배추의 출하로 출하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급량이 증가

하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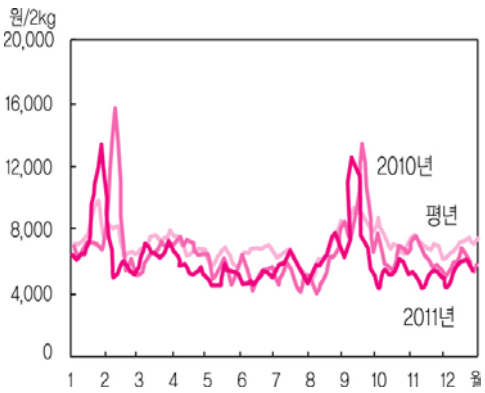
*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8kg당 4,170원/kg으로 작년 동기보다 68% 낮고 평년 동기보다 15% 낮은 수준임.

● 2012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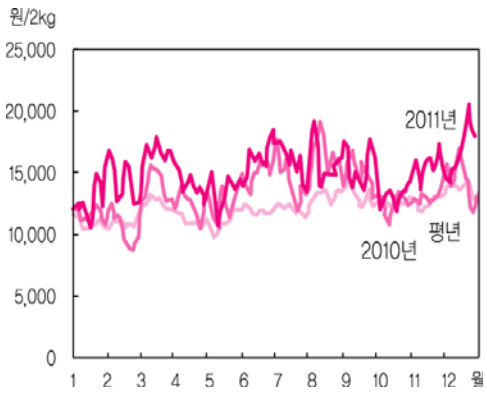
- 12월 하순 충청지역 가을양배추 출하가 마무리되고, 전라·제주지역 겨울양배추 출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양배추 가격은 평년가격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을 전망임.

2.5. 버섯

【 느타리버섯 도매가격 동향 】



【 양송이버섯 도매가격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느타리 4/4분기 가격은 신규 재배 농가 증가 및 기존 농가 증설로 출하량이 증가하여 작년과 평년보다 하락함.

  *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기준 5,320원/2kg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5%, 27% 낮은 수준임.

- 양송이 4/4분기 가격은 경영비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혼합 배지 이용으로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줄어 작년과 평년보다 상승함.

* 4/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기준 15,050원/2kg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4%, 15%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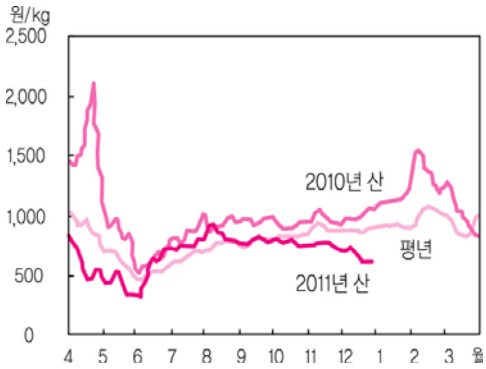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전망

- 느타리 균상·봉지재배는 가격 하락세와 경영비 상승으로 재배 감소가 이어져 작년보다 출하가 줄고, 병재배는 시설 확대로 작년보다 출하가 다소 늘어날 전망임.
- 양송이는 볏짚 부족으로 혼합 배지를 사용하면서 단수가 감소하여 작년보다 출하가 적을 것으로 조사되어 1/4분기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높을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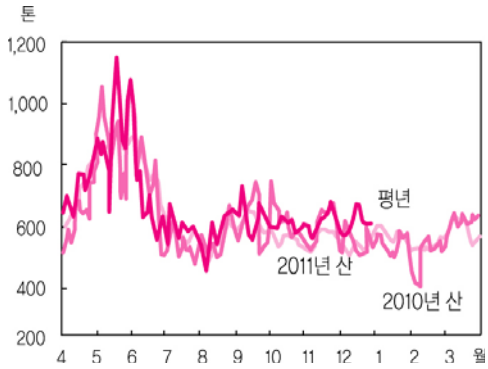
3. 양념채소[8)]

3.1. 양 파

【 양파 도매가격 동향 】



【 양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5년 4월~2010년 3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양파 4/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25% 낮은 730원임.
    * (금년) 730원/kg → (작년) 970원 → (평년) 870원
  - 이는 2011년산 양파 생산량(150만 2천 톤)이 작년보다 8% 많았고, 저장량(73만 7천 톤)도 28% 많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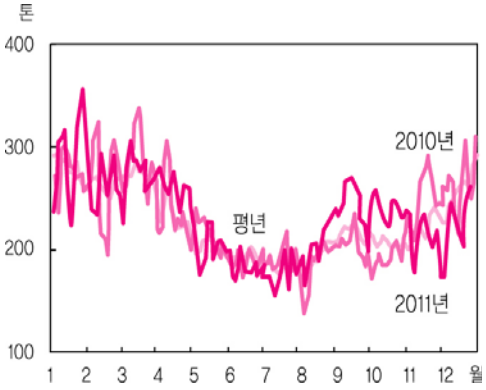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전망
  - 11월말 현재, 부패율은 9.9%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패율을 적용한 저장 양파 재고량은 40만 4,000톤으로 작년보다 39% 많은 수준임.
  - 재고량 증가로 향후 소비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내년 1/4분기 양파 가격은 작년 대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금년 양파 가격 하락과 배추, 무 등으로 재배의향이 대체되면서 금년보다 3% 감소할 전망임.
    * 품목별로는 조생종이 6%, 만생종이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성우 부연구위원(swootamu@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김재한(jaehan@krei.re.kr), 노호영(rhy81@krei.re.kr), 한은수(hanes012@krei.re.kr), 김지연(jykim12@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3.2. 대 파

【 대파 도매가격 동향 】

【 대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자료는 2006년 1월~2010년 12월의 일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대파 4/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도매가격은 940원으로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63%, 25% 낮은 수준이었음.
    * (금년) 940원/kg → (작년) 2,560원 → (평년) 1,240원
  - 이는 작년 가격 상승으로 가을, 겨울대파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2년 1/4분기 전망
  - 내년 1~4월의 겨울대파 출하면적이 금년 동기보다 14%, 작황도 17%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출하기 가격은 상품 kg당 700원 내외로 전망됨.
  - 내년 1월에 한파가 발생할 경우, 출하량은 금년 동기보다 15% 줄어 가격은 1,000원까지 상승 전망.
  - 고온이 지속될 경우, 단수 증가로 수확량이 금년 동기보다 36% 증가하여 60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3.3. 건고추

【 화건 도매가격 동향 (상품) 】

【 양건 도매가격 동향 (상품) 】

주: 일변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년 8월~2011년 7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8월 가격은 햇 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건고추 화건 4/4분기 상품 600g당 5대 도매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64% 높은 1만 4,290원, 양건은 63% 높은 1만 6,990원 수준이었음.
  * 화건: (금년) 14,290원/600g → (작년) 8,710원 → (평년) 6,010원
  * 양건: (금년) 16,990원/600g → (작년) 10,410원 → (평년) 7,460원
- 이는 2011년산 생산량 감소로 재고량이 적었기 때문임.
- 통계청 확정 발표에 의하면(11.24), 2011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4만 2,574ha, 10a당 수확량은 181kg으로 생산량은 평년과 작년보다 각각 35%, 19% 적은 7만 7,110톤임.

【 2011년산 고추 생산량 】

구분		재배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톤)
2011년산		42,574	181	77,110
2010년산		44,584	214	95,391
평년		48,913	245	119,254
감소율 (%)	작년	-4.5	-15.4	-19.2
	평년	-13.0	-20.6	-35.3

자료: 통계청.

- 2011년 8~12월 건고추 공급량은 이월·수입량이 많으나, 생산량은 적어 작년 동기보다 7% 적은 12만 8,400톤이며, 소비량은 국내산 건고추 가격 상승으로 작년 동기보다 4% 적은 10만 톤으로 추정됨.
- 따라서 건고추 연말 재고량은 공급량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18% 적은 2만 8,410톤으로 추정됨.

【 2011년산 고추 생산량 】

연산	생산량(A)	8~12월 이월·수입량(B)	공급량 (C=A+B)	8~12월 소비량(D)	연말 재고량 (E=C-D)
2011	77,110	51,261	128,371	99,961	28,410
2010	95,391	43,258	138,649	103,894	34,755
감소율(%)	-19.2	18.5	-7.4	-3.8	-18.3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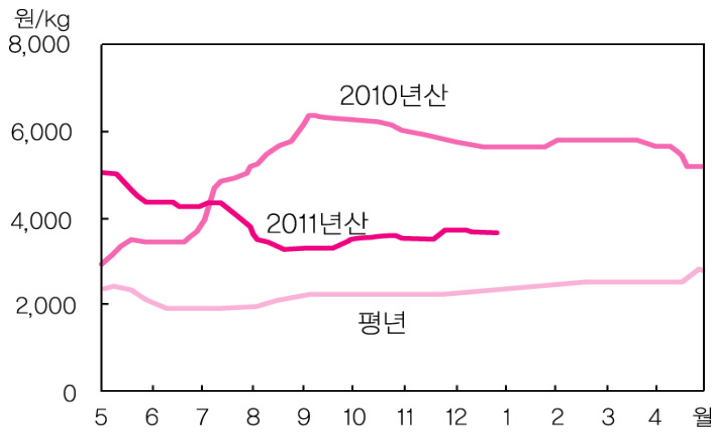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전망

- 건고추(화건) 1월 이후 가격은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임.

  * 민간수입 증가와 정부비축물량이 지속적으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3.4. 마 늘

【 마늘 도매가격 동향 】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가격은 2006년 5월~2011년 4월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마늘 4/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3,610원(난지형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39% 낮은 수준임.

  * 난지형 마늘: (금년) 3,610원/kg → (작년) 5,960 → (평년) 2,270

- 이는 2011년산 마늘 재고량이 전년보다 적었으나, 민간수입 증가와 정부비축물량의 지속적인 방출 때문임.

【 2011년산 마늘 저장량 추정 】

단위: 톤

연 산	저장량	11.20일까지 출고량	11.20일까지 재고량	조정 재고량 (부패율 적용)
2011	58,790	21,490	37,300	35,450
2010	63,350	22,280	41,070	38,120
증감률(%)	-7.2	-3.5	-9.2	-7.0

주: 2011년산과 2010년산의 부패율은 각각 5.0%, 7.2%를 적용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저장업체 조사결과, 금년 11월 20일까지의 마늘 출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4% 적은 2만 1,500톤이며 출고량을 제외한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9% 적은 3만 7,300톤으로 추정됨. 부패율을 적용한 조정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7% 적은 3만 5,500톤임.
- 11월 말 중국 신선통마늘과 냉동마늘 민간수입가능가격은 각각 3,000원/kg, 1,000원/kg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각각 78%, 72%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8월~11월까지 정부비축물량 8,941톤을 방출하였고, 현재 남은 물량은 정부에서 수매한 2011년산 국내산 저장마늘 2,881톤을 포함한 9,540톤임.
- 2012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최근 높은 시세로 인해 작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2%, 난지형이 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12년산 마늘 재배면적 금년 대비 증가율 】

단위: %

구 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한지	1.8	1.8	6.3	-	1.3	-	-	1.6
난지	-	4.3	5.2	7.7	3.4	2.7	1.2	4.7
전체	1.8	3.0	5.4	7.7	2.0	2.7	1.2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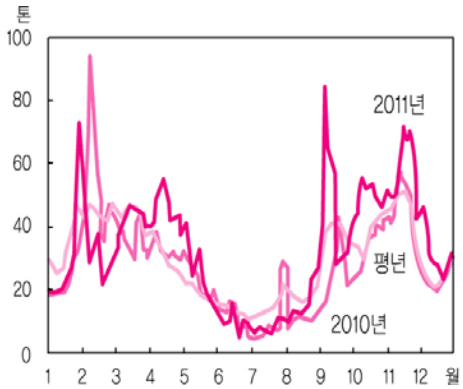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20일 표본농가 조사치.

- 2012년 1/4분기 전망
  - 2011년산 마늘 재고량이 2010년보다 적으나, 민간수입이 증가하고 정부비축물량도 지속적으로 방출되어 2012년 1/4분기 가격은 2011년 12월(3,650원/kg) 대비 약보합세가 전망됨.

3.5. 쪽파

【 쪽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쪽파 반입량 동향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쪽파 4/4분기 상품 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보다 각각 48%, 1% 낮은 2,240원 수준임.

* (2011년) 2,240원/kg → (2010년) 4,260원 → (평년) 2,260원

-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김장쪽파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작년 동월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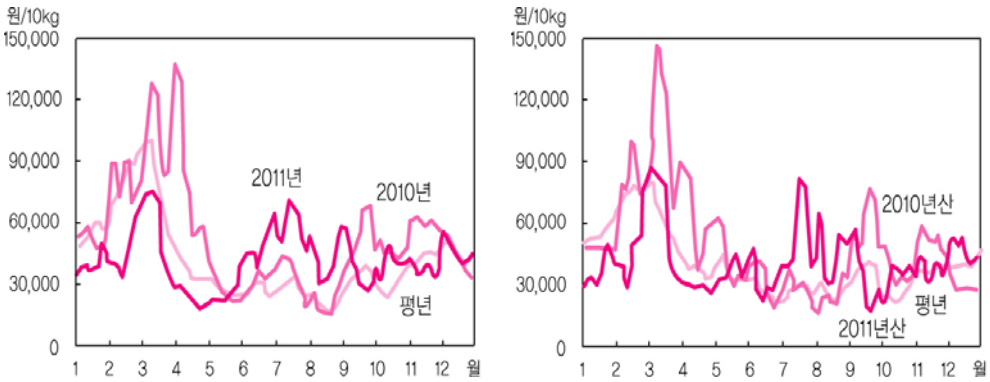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전망

- 1/4분기 가격은 금년보다 낮을 전망임.

* 내년 1~4월에 출하되는 월동쪽파 출하량은 금년 동기보다 19% 많아 가격은 금년 동기보다 낮으나, 평년 동기(2,000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됨.

3.6. 풋고추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일반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2006~2010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풋고추의 4/4분기 상품 10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청양이 작년보다 17% 낮은 41,280원, 일반은 3% 높은 40,490원으로 평년보다 각각 19%, 4% 높은 수준임.

* 청양 : (금년) 41,280원/kg → (작년) 49,808원 → (평년) 39,730원

* 일반 : (금년) 40,490원/kg → (작년) 39,200원 → (평년) 34,050원

- 청양의 경우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영호남 지역의 9~10월 기온이 높

아 출하량이 증가한 반면 일반은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12년 1/4 분기 전망

- 1/4분기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대비 강보합세로 전망됨.
  * 경남의 재배면적 감소와 한파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로는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한 일반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12월 전년 대비 기온이 낮고 유류비 부담으로 인한 농가 가온이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1/4분기 출하량이 급감할 경우 가격 상승폭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위한 수급조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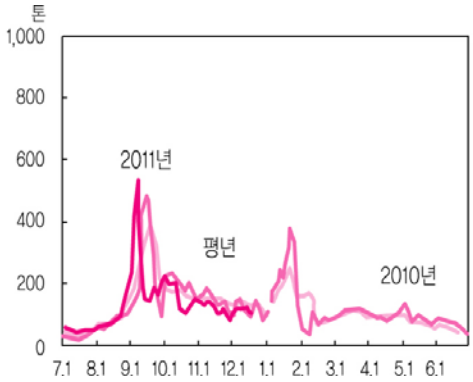
4. 과일[9)]

4.1. 사과

【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사과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후지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10월은 4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49% 높고, 11월은 4만 6천원으로 20% 높았음. 10~11월 사과 반입량은 전년보다 20% 가량 적었음. 12월(1~23일) 후지 가격은 4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 높은 수준임.

- 2012년 1/4분기 전망
  - 2012년 1월 출하량은 4만 7천 톤으로 전년보다 17% 적고, 설 성수기(설 전 2주) 출하량은 3만 4천 톤 정도로 지난 설보다 3% 적을 것으로 예상됨. 2월 이후는 10만 9천 톤 정도로 전년보다 22% 적을 전망임. 설 명절 대과 위주의 출하로 인해 2월 이후는 중·소과 비율이 더 높아져 상품과 중품간 가격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호근 부연구위원(hogunc@krei.re.kr), 신유선(shinys@krei.re.kr), 이미숙(lms1214@ krei.re.kr), 여민수(ch62minsu@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2년 재배면적 전망

- 2012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3만 1천 ha 정도로 전망됨.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1% 줄어든 2만 1,200ha, 유목면적은 3% 늘어난 1만 ha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충청·경북·호남이 전년보다 각각 2~5% 늘고, 경남지역은 신규과원 조성이 거의 없어 전년보다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파악되었음. 품종별로는 쓰가루와 양광이 전년보다 각각 2%, 4% 감소하고, 홍로는 전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과 출하량 증감률 】

단위: %

	2011년	2012년	
	8~12월	1월	2월 이후
전년대비	-14.6	-16.8	-21.9
평년대비	-17.4	-9.6	-18.3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사과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1년	9,772	21,395	31,167
2012년	10,090	21,200	31,290
증감률	3.2	-0.9	0.4

자료: 통계청(2011년),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사과 품종별 재배면적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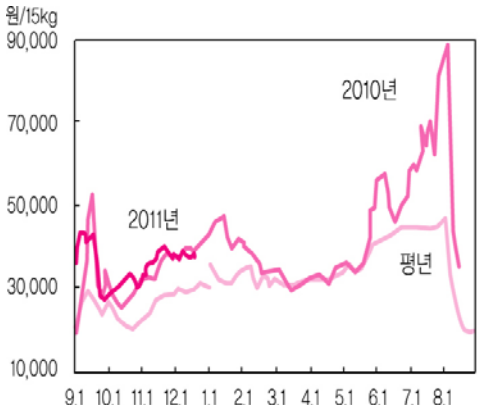
단위: %

	후지	후지조숙계	쓰가루	홍로	양광	전체
2012/2011	0.6	-0.2	-2.4	3.2	-3.6	0.4
면적비중	60.0	13.4	3.9	14.2	2.2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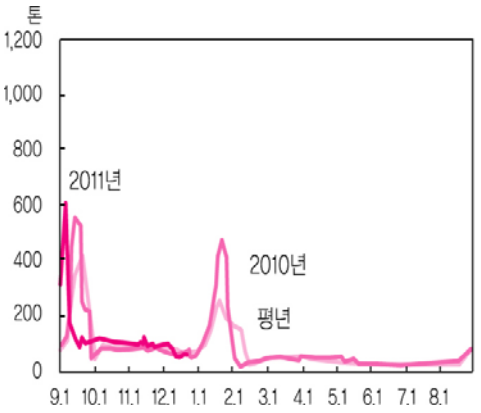
4.2. 배

【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배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신고 배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5kg에 10월은 3만 1천원으로 전년보다 11% 높고, 11월은 3만 8천원으로 8% 높았음. 10~11월 반입량은 전년보다 6% 많았으나 당도, 크기 등 품질이 좋아 가격이 높았음. 12월(1~23일) 신고 가격은 3만 8천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2012년 1/4분기 전망

- 2012년 1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15% 적고, 설 성수기(설 전 2주) 출하량은 5만 톤으로 지난 설보다 2% 가량 적을 것으로 예상됨. 2월 이후는 출하량이 5% 적어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 중·소과 비율이 전년보다 높아 특·상품과 중·하품간의 가격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재배면적 전망

- 2012년 배 재배면적은 1만 5천 ha로 전년보다 1% 감소할 전망임.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1% 줄어든 1만 3,750ha, 유목면적은 4% 줄어든 1,200ha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충청·영남·호남이 전년보다 각각 1% 감소하고, 강원·경기지역은 전

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이 각각 1% 감소하고, 황금배와 기타 품종은 각각 3%,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배 출하량 증감률 】

단위: %

	2011년	2012년	
	8~12월	1월	2월 이후
전년대비	4.7	-14.5	-5.4
평년대비	-33.1	-14.5	-45.0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1년	1,250	13,831	15,081
2012년	1,200	13,750	14,950
증감률	-3.9	-0.6	-0.9

자료: 통계청(2011년),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품종별 재배면적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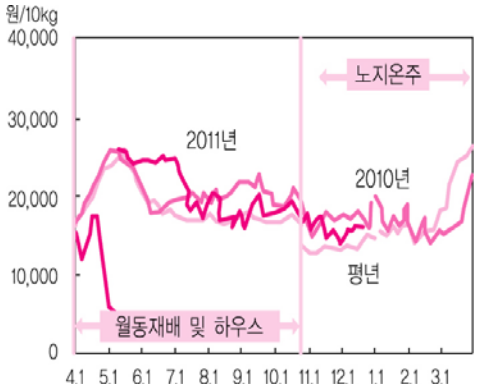
단위: %

	신고	원황	황금	화산	기타	전체
2012/2011	-0.7	-1.3	-2.6	-0.3	-2.2	-0.9
면적비중	83.8	5.9	2.2	1.3	6.8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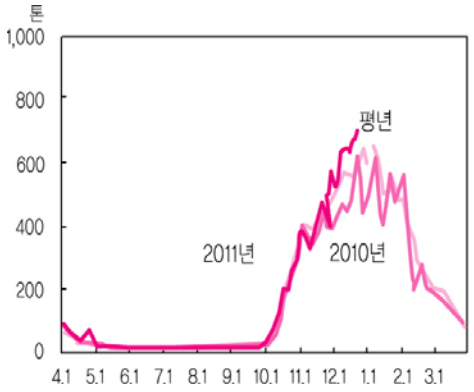
4.3. 감귤

【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감귤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노지온주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0kg에 10월은 2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9% 낮았고, 11월은 1만 6천원으로 4% 낮았음. 12월(1~23일) 노지온주 가격은 1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낮은 수준임.

● 2011년 생산량 추정

- 2011년 노지온주 성목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단수는 착과량이 많아 전년보다 17% 증가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전년보다 16% 많은 55만 6천 톤 수준으로 추정됨.
- 월동온주도 성목면적은 감소하지만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보다 2% 많은 2만 4천 톤 가량으로 추정됨. 시설재배에 대한 FTA 지원 사업으로 매년 면적이 늘었던 월동온주는 수익성이 높은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로 고접갱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라봉 생산량은 성목면적과 단수가 각각 9%, 3% 증가하여 전년보다 12% 많은 3만 4천 톤으로 추정됨. 성목면적이 매년 늘고 묘목 수요도 증가하여 한라봉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

단위 : ha, kg/10a, 천 톤, %

		성목면적	단수	생산량
2009년산		18,190	3,602	655.0
2010년산		17,830	2,696	480,6
2011년산		17,650	3,151	556.0
증감률	2009년 대비	-3.0	-12.5	-15.1
	2010년 대비	-1.0	16.9	15.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0~11),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2011년).

● 2012년 1/4분기 전망

- 1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18% 많은 12만 2천 톤 수준으로 전망됨. 수확기 많은 강우로 산 함량이 다소 낮아져 조기출하가 많을 것으로 조사됨. 2월 이후 출하량은 전년보다 14% 많은 7만 4천 톤 가량으로 예상됨.

【 노지온주 출하량 전망 】

단위: 천 톤, %

		출하량				
		계	11월까지	12월	1월	2월 이후
2010년산(A)		335.7	99.0	94.6	104.0	38.1
2011년산(B)		391.4	113.1	112.4	122.4	43.4
05,07,09년 평균(C)		455.4	138.3	124.3	118.5	74.4
증감률	B/A	16.6	14.2	18.9	17.8	13.9
	B/C	-14.1	-18.2	-9.5	3.4	-41.6

자료: 감귤출하연합회(2010~11년),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2년 재배면적 전망

- 2012년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조사됨. 시설재배에 대한 FTA 지원사업으로 노지재배가 시설재배로 전환되고 있음.
- 노지온주, 월동온주, 가온 하우스온주 면적이 줄고, 무가온 하우스온주와 만감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감귤류 재배면적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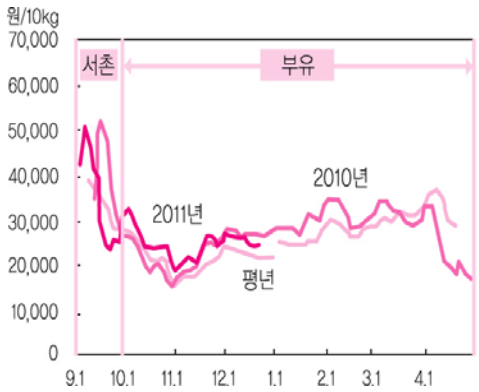
단위: %

	온주				만감류		계
	노지	월동	하우스(가온)	하우스(무가온)	한라봉	기타	
2012/2011	-1.0	-4.8	-5.7	4.2	2.0	6.5	-0.6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4. 단감

【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단감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단감부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10kg에 10월은 2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26% 높았고, 11월은 2만 3천원으로 7% 높았음. 반입량은 전년보다 많았으나 당도, 색택 등 품질이 좋았고, 전반적으로 과일 가격이 높게 형성됨. 12월(1~23일) 부유 가격은 상품 15kg에 3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 2012년 1/4분기 전망
  - 2012년 1월 출하량은 전년보다 3% 많은 2만 8천 톤으로 예상됨. 2월 이후는

출하량이 5% 많아져 가격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비대가 급격히 이루어져 저장 시 과피흑변, 갈변현상 등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출하시기 조절이 필요함.

● 2012년 재배면적 전망

- 2012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만 4천 ha으로 전망됨.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도시개발, 매실·참다래 등 타 작목 전환으로 면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품종별로는 부유, 차랑, 서촌조생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1%, 2%, 5% 감소하고, 기타 품종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완전탈삽이 어렵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서촌조생은 태추, 상서조생 등으로 계속 전환될 것으로 나타남.

【 단감 출하량 증감률 】

단위: %

	2011년		2012년	
	11월까지	12월	1월	2월 이후
전년대비	16.9	15.1	3.4	4.9
평년대비	3.2	-3.1	1.6	-12.4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단감 품종별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부유	차랑	서촌조생	기타	전체
2011년	11,830	1,390	500	560	14,300
2012년	11,730	1,360	480	580	14,170
비중	82.8	9.6	3.4	4.2	100.0
증감률	-0.8	-2.4	-4.5	3.6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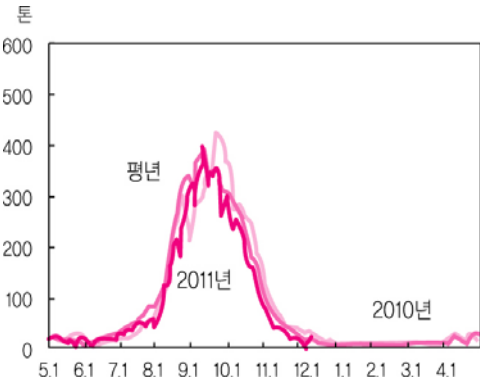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1년),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5. 포도

【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포도 반입량 동향 】



주: 평년은 2006~10년 일별 물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1년 4/4분기 동향

- 4/4분기 포도 도매가격(가락시장 기준)은 상품(특·상·중·하 구분) 5kg에 10월은 캠벨얼리 2만원으로 전년보다 46% 높고, 11월은 캠벨얼리 2만 3천원, MBA 1만 6천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65%, 9% 높았음. 이는 10~11월 포도 반입량이 전년보다 30~40% 가량 적었기 때문임.

● 2012년 재배면적 전망

- 2012년 포도 재배면적은 1만 7천 ha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노지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하고, 시설 재배면적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가온 시설면적은 전년보다 1% 감소하고, 무가온 시설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가온에서 무가온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늘고, 시설포도 폐원지원이 종료되어 신규재배가 늘어나기 때문임.
-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MBA는 전년보다 각각 1% 감소할 전망임. 기타 품종은 자옥, 머스캣 오브 알렉산드리아(Muscat of Alexandria), 청수 등을 중심으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11~12월 가온시설 재배면적은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보다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1월은 전년보다 9% 감소하고, 2월은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가온시기 지연으로 출하시기가 늦춰져 2012년 4~5월과 6월 가온시설 출하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18%, 14% 감소하고, 7월은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노지	시설			전체
		가온	무가온	합계	
2011년	14,978	800	1,667	2,467	17,445
2012년	14,790	790	1,820	2,600	17,390
증감률	-1.3	-1.4	8.8	5.5	-0.3

자료: 통계청(2011년),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품종별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캠벨얼리	거봉	MBA	델라웨어	기타	전체
2011년	12,183	2,741	1,260	128	1,133	17,445
2012년	12,110	2,730	1,250	130	1,170	17,390
비중	69.6	15.7	7.2	0.7	6.7	100.0
증감률	-0.6	-0.3	-1.0	1.5	3.4	-0.3

자료: 통계청(2011년),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가온시설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11~12월	1월	2월	합계
2011년	152	276	371	800
2012년	130	250	410	790
증감률	-16.9	-9.0	10.6	-1.4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포도 가온시설 출하면적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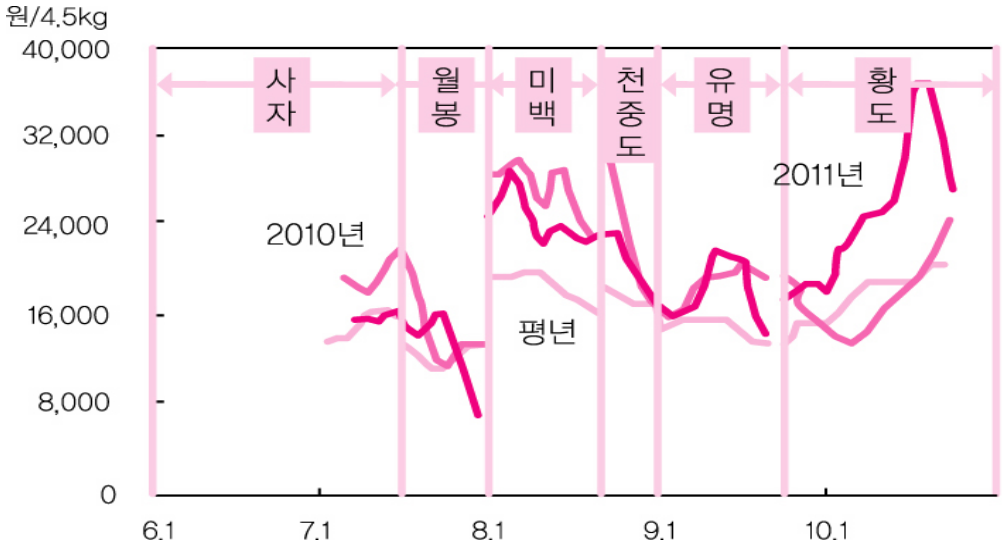
단위: ha, %

	4~5월	6월	7월	합계
2011년	24	168	608	800
2012년	20	140	630	790
증감률	-17.6	-14.3	2.8	-1.4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4.6. 복숭아

【 복숭아 도매가격(상품) 】



주: 평년은 2006~10년 월별 수입량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2012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1만 4천 ha로 전년보다 3% 증가할 전망임. 성목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고, 유목면적은 지원사업과 동해 피해에 의한 고사로 신규 묘목식재가 많아 전년보다 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품종별로는 유모계 재배면적이 1만 1천 ha로 전년보다 3% 늘고, 천도계는 2,900ha로 전년보다 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숙기별로는 유모계 조생종과 중생종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6%, 4% 늘고, 만생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최근 몇 년간 유모계 조·중생종 가격이 만생종에 비해 좋고 장마기간을 피할 수 있어 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영남지역의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4% 늘고, 강원·경기와 호남지역이 2%, 충청지역이 1%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었음.

【 복숭아 재배면적 전망 】

단위: ha, %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1년	4,257	9,538	13,795
2012년	4,600	9,610	14,210
증감률	8.0	0.7	3.0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복숭아 숙기별 재배면적 증감률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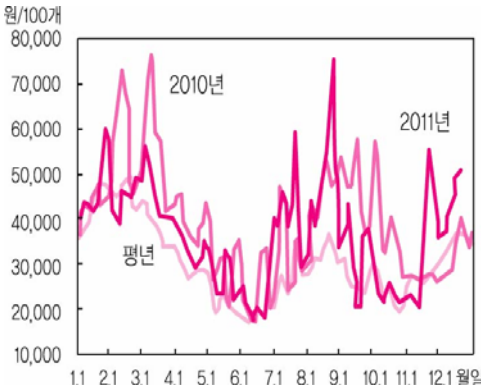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전체
천도계	2012/2011	1.2	1.2	5.6	2.3
	면적비중	33.3	43.1	23.6	100.0
유모계	2012/2011	6.4	3.5	0.5	3.2
	면적비중	25.5	39.1	35.3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11월 30일 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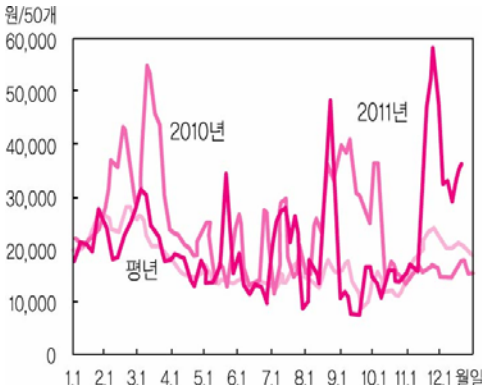
5. 과채[10)]

5.1. 오이

【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4/4분기 동향
  - 백다다기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0개에 10월 2만 3,100원, 11월 3만 5,600원이었음. 10월은 전년보다 42% 낮았으나, 11월은 32% 높았음.
  - 10월은 충남 천안, 연기에서 작목 전환 및 신규재배 증가로 면적이 늘고 작황도 양호해 출하량 많았음. 11월은 출하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주산지 일조시간 부족으로 작황은 부진하여 출하량 적었음.
  - 취청오이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0개에 10월 1만 4천원, 11월 3만 3,400원으로 평년보다 높았음.
  - 백다다기오이 12월 평균도매가격(1~19일)은 4만 2,500원 수준으로 주산지 재배규모가 늘었지만 구름 낀 날이 많아 일조시간이 부족하여 가격 강세가 지속됨.
  - 취청오이 12월 평균도매가격(1~19일)은 3만 2,200원으로 상순가격의 보합세가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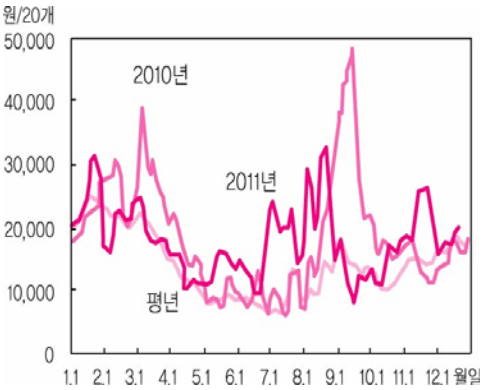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정호근 부연구위원(hogunc@krei.re.kr), 김수림 (surim@krei.re.kr), 지현서 (kpnu@krei.re.kr), 이형용(lhy2813@krei.re.kr), 유정애(syhjya@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12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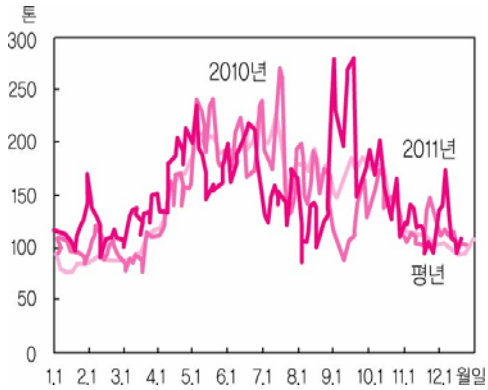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의 2011년 11월~2012년 2월 정식(의향)면적은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어 출하면적은 큰 변동이 없으나 기상여건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취청오이 정식(의향)면적은 3% 감소할 것으로 보여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5.2. 호박

【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애호박 반입량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4/4분기 동향

- 애호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0개에 10월 1만 4,600원, 11월 2만 2,300원임. 충청지역의 규모 확대 및 조기 정식 영향으로 10월 가격은 작년보다 18% 낮았으나 11월 가격은 주산지 작황 부진 등으로 크게 높았음.
- 12월은 영남지역 재배규모가 확대되었지만 11월말~12월초의 주산지 일조시간 부족 영향으로 가격(1~19일)은 작년 동기 대비 24% 높은 1만 7,800원임.

● 2012년 1/4분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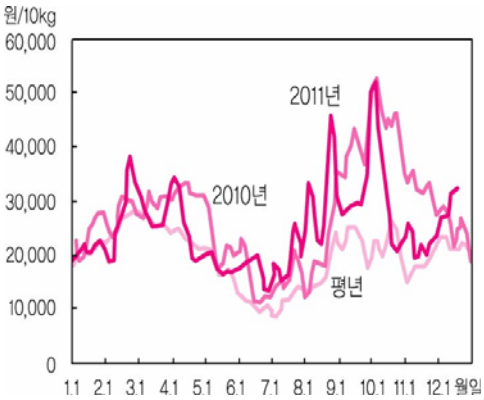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애호박 출하면적은 영남지역 규모 확대 영향으로 소폭 증가하나 출하면적 증가 수준이 크지 않아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출하량은 유동

적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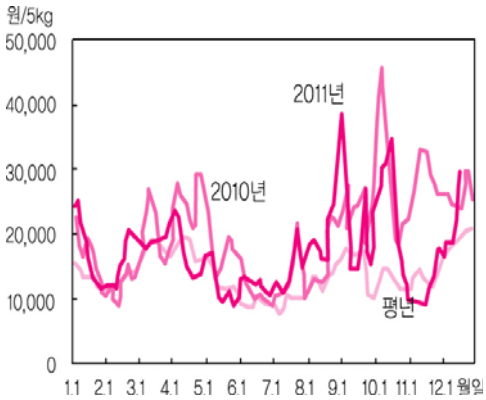
- 내년 1월 도매가격은 주산지 기상여건과 설 명절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고, 2~3월 평균가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임.

5.3. 토마토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



주: 일별자료는 5일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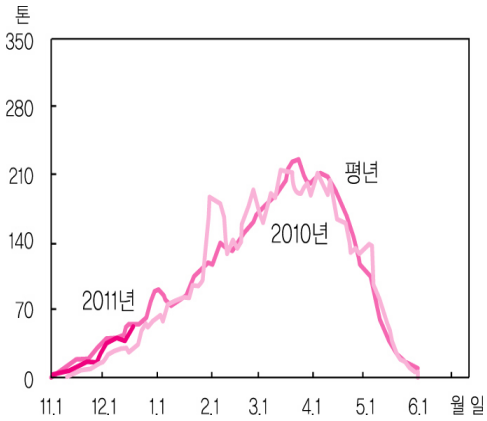
- 4/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0월 3만 1,200원, 11월 2만 2천원이었음. 10~11월 평균가격은 2만 6,6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낮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34% 높았음.
  - 방울토마토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5kg 상자에 10월 2만 5천원, 11월 1만 1,100원이었음. 10~11월 평균도매가격은 1만 8천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7% 낮았고, 평년 동기보다는 41% 높았음.

- 2012년 1/4분기 전망
  - 일반토마토 2011년 12월 정식의향면적은 5% 감소하지만, 2012년 1월 정식의향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함. 방울토마토 2011년 12월~2012년 1월 정식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 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5.4. 딸기

【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

【 딸기 반입량 동향(상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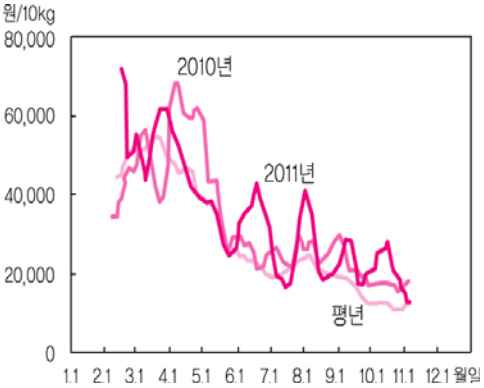


주: 일별자료는 5일 이동 평균치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일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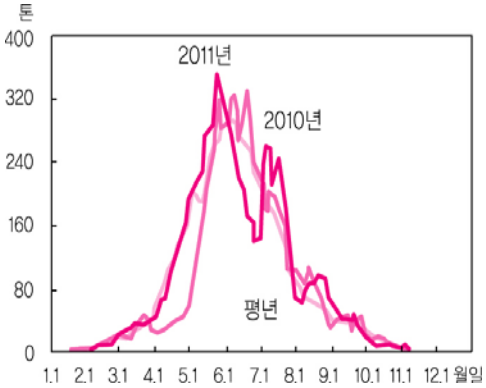
- 4/4분기 동향
  - 딸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2kg 상자에 11월 2만 6,400원이었음. 이는 작년 동기보다 11% 낮고, 평년보다 31% 높음. 12월 현재(1~19일) 평균가격은 작년보다 낮고 평년보다 높은 2만 2,500원 수준임.
  - 2012년산 딸기 재배면적은 주산지 노동력 부족, 타작목 전환,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인해 작년보다 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국산딸기 정식면적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5.5. 참외[11)]

【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참외 반입량 동향(상품) 】



주: 가격 및 반입량은 순별 자료임. 평년은 2006~2010년의 순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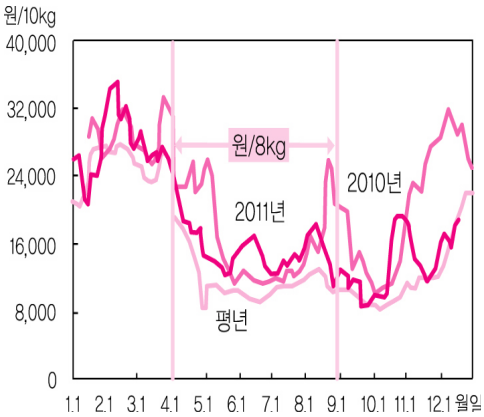
- 2011년 동향
  - 2011년산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3만 5,700원으로 2010년산보다 5% 높았으나, 주출하기인 4~8월의 평균도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9% 낮은 3만 2,500원이었음.
  - 2011년 2월, 3월 가격은 유통 단위 변경에 따른 품질 향상 등으로 전년보다 각각 45%, 14% 높았고, 4월, 5월에는 작황 양호로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보다 각각 25%, 18% 낮았음.
  - 6월은 수세 관리에 따른 출하면적 감소로 반입량이 29% 줄어 가격이 전년보다 38% 높았으며, 7~9월에는 침수피해에 따른 품질 하락으로 가격이 1~12% 낮았음.
  - 2011년산 참외의 이른 재배 종료 후 토양 관리를 마친 농가들의 조기 정식 증가로 11월 정식이 전년보다 6% 증가하였고, 12월은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2012년 1/4분기 전망
  - 내년 1월 정식의향면적은 신규 면적 확대에 따라 전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신규 재배지 일부의 영농 준비 지연에 따라 내년 1/4 분기 정식비중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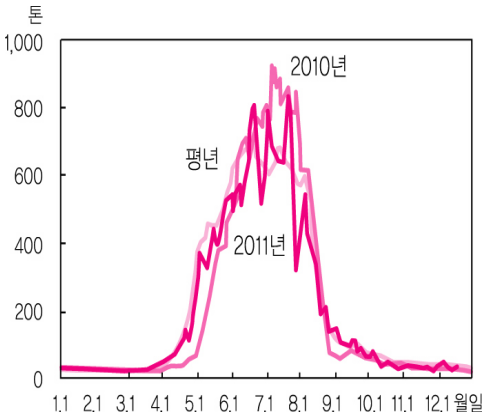
11) 2011년 2월부터 15kg 상자에서 10kg 상자로 경량화

5.6. 수박

【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



【 수박 반입량 동향(상품) 】



주: 가격 및 반입량은 순별 자료. 평년은 2006~2010년의 순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 4/4분기 동향
  - 10월 수박 평균도매가격(가락시장)은 상품 10kg 상자에 1만 4,7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23% 높은 수준임.
  - 11월 상순은 10월말 가격 강세 영향으로 상품 10kg 상자에 1만 6,100원으로 평년보다 36% 높았으나, 하순에는 반입량 증가로 평년보다 7% 높은 1만 2,600원 수준으로 하락함.
  - 12월 평균도매가격(1~19일)은 1만 6,400원으로 11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영남지역의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으로 11월 하우스 설치가 지연되어 12월 정식이 늘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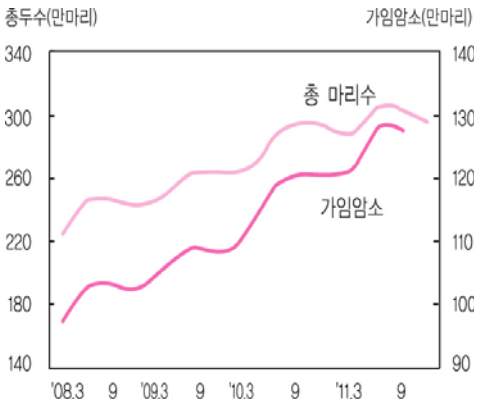
- 2012년 1/4분기 전망
  - 현재(12월 중순), 겨울 수박의 최대 주산지인 경남 함안의 하우스 설치는 대부분 이루어 진 상태이지만 땅이 덜 마른 관계로 12월말 본격적인 정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전년에 비해 2~3주 정도 정식이 늦춰진 것으로 파악되며 12월과 내년 1/4분기 정식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6. 축산[12)]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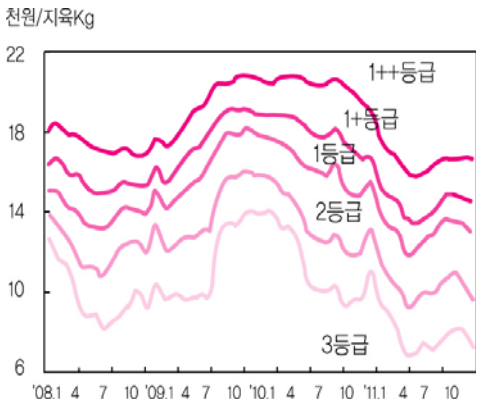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한육우 사육 마리수 추이 】



자료: 통계청.

【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 마리수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리 수는 9월보다 2.8% 감소하였으나 전년보다 1.0% 증가한 295만두임.
- 송아지 생산 감소와 도축 마리수 증가로 2012년 3월 한육우 사육 마리 수는 2011년 12월보다 1.7% 감소한 291만 마리로 전망됨.

● 도매가격

-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 증가로 2011년 10~12월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11.1% 하락한 13,318원임.
- 한우 도축 마리수 증가로 2012년 1~2월 이후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약보합세가 예상됨.

1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우병준 연구위원(bjwoo@krei.re.kr), 이형우 연구원(lhw0906@krei.re.kr), 김원태 연구원(wtkim@krei.re.kr), 이정민 연구원(fantom99@krei.re.kr), 김형진 연구원(junjang00@krei.re.kr), 남경수 연구원(ksnam@krei.re.kr) 이 작성하였음.

【 한육우 사육 마리수 및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망 】

	2011.12월(A)	2012.3월(B)	B/A
사육 마리수	295만 마리	291만 마리	-1.7%
1등급 가격 (지육kg)	10~12월 13,318원	2012.1~2월 13,000~14,500원	-2.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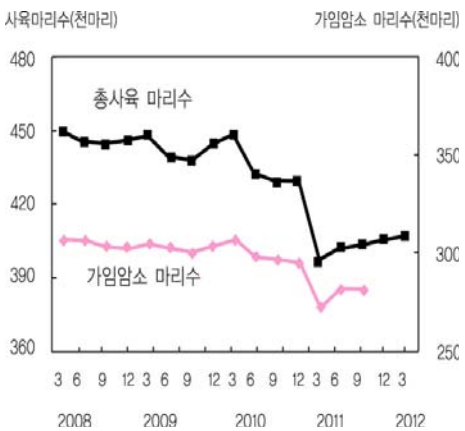
나. 대책 방향

- 소비 촉진 활동 강화
  - 자율적인 암소 도태를 적극 유도해야 함.
  - 지속적인 할인행사를 통해 한우고기 소비를 촉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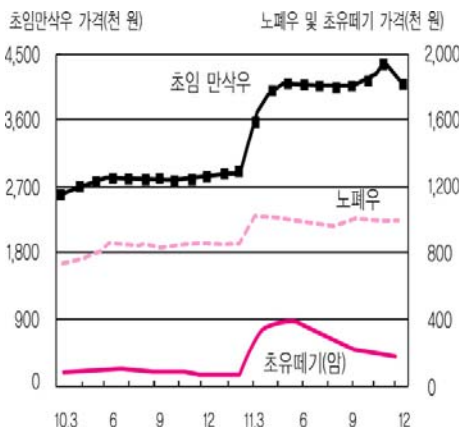
6.2. 젖소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젖소 사육 마리수 동향 】



【 젖소 산지가격 변동 】



- 사육동향 및 전망
  - 구제역 이후 젖소 사육 마리 수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임. 2011년 12월 젖소 사육 마리 수는 전년대비 5.3~8.0% 감소

한 40만 5천~40만 7천 마리로 전망됨.

- 금년 8월 원유 수취가격 인상으로 농가의 경영수지가 개선되면서 농가 젖소 사육의향이 고무되어 2012년 2월 사육 마리 수는 40만 6천~40만 9천 마리로 전망됨.

● 젖소 산지가격 동향

- 초임만삭우: 농가별 쿼터량 확대 및 원유 수취가격 인상에 따라 12월 초임만삭우 가격은 전년대비 45.7% 증가한 409만원임.
- 초유떼기(암송아지) 및 노폐우 : 초유떼기(암송아지)는 전년대비 145.6% 상승한 18만 9천원, 노폐우는 18.5% 상승한 100만원임.

● 유제품 수입 동향

- 2011년 8~10월 유제품 수입량은 6만 6,423톤으로 전년대비 31.2% 증가함.
- 버터, 치즈, 전지 및 탈지 분유수입은 증가한 반면 유장 및 혼합분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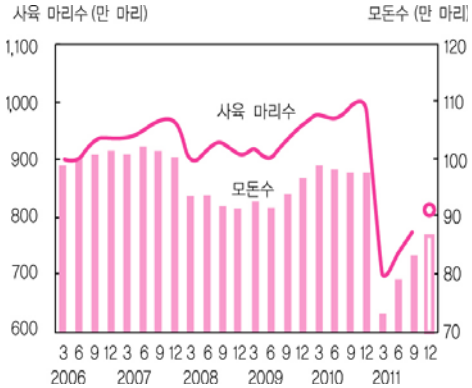
● 원유 생산 동향 및 전망

- 3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46만 9천 톤임.
- 수취가격 상승으로 2011년 4분기 원유 생산량은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1년 4분기 원유 생산량은 47만~47만 5천 톤으로 추정되며, 2012년 1분기는 48만 1천~48만 6천 톤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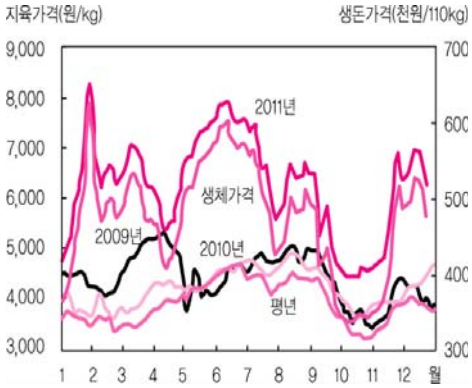
6.3. 돼지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사육 마리수와 모돈수 추이】



【 돼지고기 지육가격 동향 】



- 사육 마리수
  - 지속된 모돈 재입식으로 12월 사육 마리 수는 전분기보다 2~3% 증가한 800~810만 마리로 추정되며, 모돈 수는 전분기보다 4% 증가한 87만 마리로 추정됨.
  - 2012년 3월 사육 마리 수는 820~830만 마리로 전망됨.

【 돼지 사육 마리수 전망 】

'11.12(A)	'11.12(B)	증감률
800~810만 마리	820~830만 마리	3.8%

- 지육가격
  - 돼지 지육가격은 구제역 이동제한시기 정액공급 부족과 백신 스트레스에 의한 모돈의 수정률 저하로 출하 마리수가 부족하여 11월 중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출하 마리수 부족은 2012년 2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설 명절까지는 지육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겠으나 설 이후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임.
  - 1월 돼지 지육가격은 6,000~6,200원, 2월은 5,500~5,800원, 3월은 5,800~6,000원으로 전망됨.

【 돼지 지육가격 전망 】

단위: 원/kg

'11.12	'12.1	'12.2	'12.3
6,450	6,000~6,200	5,500~5,800	5,800~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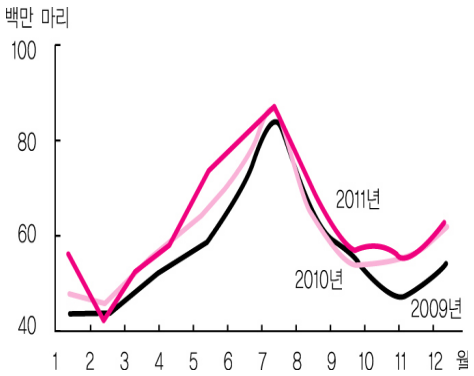
나. 대책 방향

● 도매시장 출하 확대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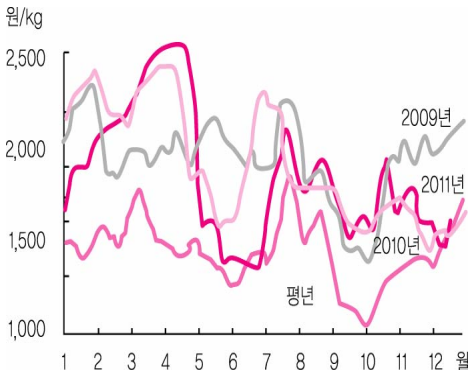
6.4. 육계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도계 마리수 추이 】



【 육계 산지가격 동향 】



● 2011년 4분기 동향

- 산란에 가담한 종계 사육 마리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성 향상으로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리 수는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4분기 도계 마리 수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억 8,053만 마리로 추정됨.
- 4분기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을 보였으나, 환율 강세의 영향으로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1만 9,800톤으로 추정됨.
- 9월 들어 부분육 구매량이 증가하면서 가구당 평균 닭고기 구매량이 증가함. 이러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저가치킨 소비가 활성화 되면서 4

분기 닭고기 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입량 감소와 수요 증가로 4분기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약 5% 상승한 1,685원/kg으로 추정됨.

● 2012년 1분기 전망

-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2년 1분기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리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산 닭고기 생산 증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닭고기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상반기 구제역 영향으로 발생했던 대체수요가 소멸되어, 2012년 상반기 닭고기 수요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2012년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1월: 1,500~1,700원/kg, 2~3월: 1,600~1,800원/kg).

나. 대책 방향

● 적절한 종계 도태로 장기적 공급과잉을 대비해야 함.

● HPAI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로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6.5. 산란계

가. 수급 동향 및 전망

● 사육동향

- 2011년 12월 산란계 사육 마리 수는 전년보다 1.2% 증가한 6,241만 마리임.
- 금년 상반기에 입식된 산란 종계가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면서 2012년 3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44.1% 높은 수준임.
- 2012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2011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산란계 사육 마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석이후 계란가격 하락으로 9~10월 노계도태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11월까지 노계도태 마리 수는 전년대비 85% 수준으로 노계도태 지연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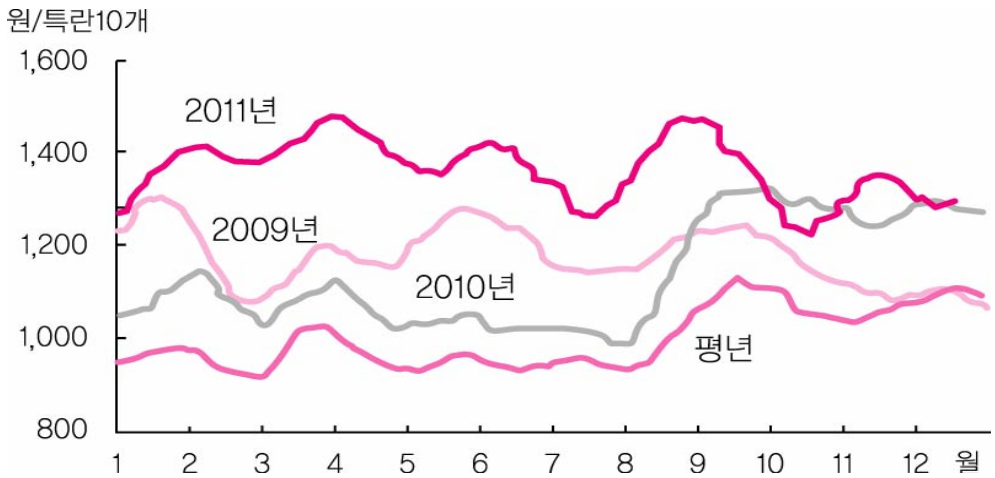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추석이후 계란수요 감소로 계란 가격이 하락하였지만, 노계도태 증가로 인한 계란 공급 감소로 반등하였음. 2011년 9~11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3.7% 상승한 1,330원(특란 10개)임.
- 12월(20일까지) 계란 산지가격은 1,294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 상승함. 노계 비중 증가로 인한 산란율 하락으로 계란 공급이 감소하여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소폭 높게 형성됨.

● 계란 산지가격 전망

-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의 증가와 노계 도태 지연으로 계란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른 설(1월 23일)로 인해 연말 가공수요와 설 수요가 짧게 나타나 이후 계란 수요의 감소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1월 계란 산지가격은 1,300~1,400원으로 전년대비 보합세, 2월은 1,200~1,300원으로 하락세가 전망됨.

【 계란 산지가격 동향 】



나. 대책 방향

- 2012년 계란 생산 과잉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노계도태가 필요함.
  - 계획적인 입식계획 및 노계도태를 유도해야 함.
  - 2012년 계란공급 과잉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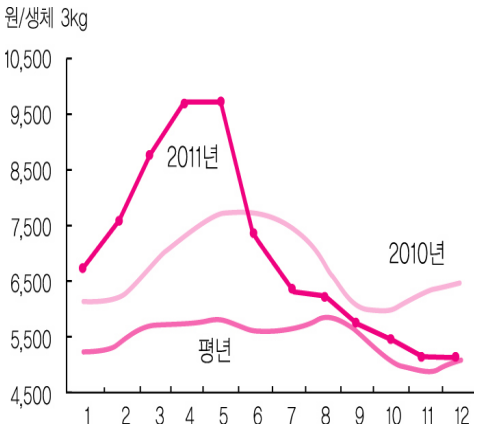
6.6. 오리

가. 2011년 하반기 수급 동향 및 전망

【 오리 사육현황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오리 산지가격 동향 】



자료: 한국오리협회

- 사육 및 수급
  - 11월 도압 마리 수는 842만 마리로 전년대비 45.3% 증가, 재고량은 1,000만 마리로 추정되어 공급과잉 상황이 계속됨.
  - 경기침체에 따른 외식수요 감소로 오리고기 소비가 둔화됨.

- 산지가격
  - 오리고기 공급과잉으로 7월 이후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약세가 지속됨.
  - 12월 오리가격은 생체 3kg당 5,700원으로 전년대비 18.6% 하락함.

- 오리고기 공급증가와 비축물량 증가로 내년 상반기 오리가격은 약세가 전망됨. 12월~내년 2월 오리 평균가격은 5,000~5,500원/3kg으로 전망됨.

나. 대책 방향

● 공급과잉 상황 해소를 위한 F1종 오리 입식 근절 및 조기도태 유도가 필요함.

특 별 주 제

❶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❷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특별 주제 1】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계임*

1. 농식품 이력관리제도 추진 현황

1.1. 추진 과정

-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신종위해물질의 증가, 잦은 식품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세계적으로 대규모 식품오염사고와 식품을 매개로 한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등으로 식품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함.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3년부터 정부주도로 도입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시범사업과도 연동하여 추진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4년부터 도입이 검토되었으며, 2005~2007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쇠고기 이력관리제도는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 단계에 시행된 데 이어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됨.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실시하고 있음. 최근에는 돼지고기와 천일염 이력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lkilki@krei.re.kr)
** 본고는 2011년 11월 발간된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이계임, 황윤재, 우병준, 조소현, 정세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1.2. 품목별 참여현황

- 등록 농가는 2006년 8,808농가에서 2010년 88,218농가로 약 10배 규모로 증가함. 유통업자와 판매업자 등록은 200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감소함. 농림수산정보센터 시스템의 이용방법이 복잡하고 65세 이상 경영주의 지속적인 증가로 등록농가의 약 6%만이 전산 등록함.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에 참여한 업체는 1,300개 규모로 판매점이 대부분(78.6%)임. 가공식품 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토록 규정되며, 2010년까지 185개 품목 18개 업체(22개 공장)가 참여하고 있음.

- 쇠고기의 이력관리 의무이행 대상은 국내산의 경우 소 소유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 판매업자이며, 수입산은 쇠고기 수입업자, 식육 포장처리업자, 식육·식육부산물 판매업자 임. 국내산 쇠고기는 소의 개체식별번호 관리와 DNA검사를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시행되며, 전자적 거래는 소, 도축업자, 일부 식육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함. 수입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통해 관리되며, 전자적 거래대상으로는 수입업자,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를 포함함.

2.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운영 평가

2.1. 농식품 이력관리 관련 법률의 품목별 분산

- 이력관리제도에 관한 법률은 식품류별로 분산되어 개별법에서 규정함.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품목의 경우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쇠고기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됨. 가공식품의 이력관리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함.

- 단계별 정보의 기록·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이력(추적)관리 규정과 관련 인증제도 규정에서만 명시되고 있으며, 상위 기본법이나 해당 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식품안전기본법”에 ‘추적조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나, 농수축산물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의 경우 판매과정을 기록, 보관할 의무가 없음.

2.2. 농식품 이력관리의 목적 불분명

- 이력관리제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고, 타 제도와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있음.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정보의 기록과 관리를 통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측면은 모든 제도에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쇠고기 이력관리는 축산업 발전을, 식품의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부가적인 목적으로 규정함.

- 법률의 분산은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도 불일치하는 측면을 나타냄.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력추적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력관리’라는 용어를 적용함.

- 표시사항 중에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도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하고, 제도 이행 주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나타남.
  - 농산물의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수산물의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 쇠고기의 ‘냉장제품 냉동전환’, ‘소의 종류’, ‘도축검사결과’, ‘등급판정결과’, ‘유통기한’, 가공식품의 ‘유전자재조합표시’,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품질검사내역’ 등

2.3. 농식품 이력관리 규정 불일치

2.3.1. 표시방법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규정·표지, 표시방법 등이 제도별로 모두 다름. 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는 표지와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쇠고기는 개별식별번호(또는 묶음번호)를 규정함. 농산물은 표지와 이력추적관리번호 이외에 시·군·구 단위 산지, 품종, 중량·개수,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작목반명)가 규정되어 다른 제도에 비해 많은 표시항목이 규정됨.

- 표지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에서는 규정되어 있으나, 각 제도별로 표지 형태가 모두 다름. 쇠고기의 경우는 표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제도별 표시방법 비교 】

	근거 법	표시규정	표시방법	표지	기타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2	표지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 인쇄, 풋말 크기 및 위치: 규정없음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낱개 또는 소포장: 표지와 이력추적 번호만 표시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표지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 인쇄, 풋말 크기 및 위치: 규정없음	수산물이력제	띠모양 표지 가능
축산물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16, 24조	개체식별번호, 묶음번호	업자: 도체 포장처리업자: 최소단위 용기.포장 판매업자: 판매표시판 또는 비닐포장 크기: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표시, 10포인트 이상	-	진열 판매시 식육 표시판을 전면 위치, 보관시 번호표시
가공식품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6조(표시기준), 7조(부착방법 등)	표시 (표시가능), 이력추적관리번호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 가능 용기.포장에 표시어려운 경우 관련 정보를 전자기록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	식품이력추적관리	크기 및 위치: 규정없음

2.3.2. 기타

- 품목에 따라 기록관리 기간과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방법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며, 벌칙 및 과태료 처분내용을 비교해보면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음.

2.4. 이력관리제도의 비효율적 운영

2.4.1. 다수의 운영주체

- 이력관리제도가 식품류별로 다수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가 분산되어 관리되고, 소비자 혼동 등의 문제가 발생함. 중앙부처와 소관과가 상이하여 제도의 연계성을 높이기 어려운 체계를 가지고 있음. 농수축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력을 관리함.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도 농산물은 안전위생과, 소 및 쇠고기는 동물방역과, 수산물은 양식사업과에서 담당함.

- 쇠고기는 소비자나 판매자 입장에서 동일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가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별도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운영됨. 따라서 식육 포장처리업자와 식육 판매업자 등의 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고, 관련 업무가 과중함.

2.4.2. 단계별 추적가능성 미흡

- 이력관리는 본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모든 단계의 거래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며, 이력관리단계가 제도별로 중점단계가 상이하며 상호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남.

- 농산물은 생산단계와 산지유통센터를 중점 관리하며, 수산물은 대형 유통점 판매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및 가공단계를 관리함.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사육 및 도축단계를 중점 관리하고,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는 표시사항에 대해서만 관리함. 가공업체는 업체의 원료구입부터 제품 납품까지 단계를 관리대상으로 함.

【 제도별 이력관리제도의 중점단계 비교 】

구분	농산물	수산물	국내 쇠고기	수입 쇠고기	가공식품
중점 단계	생산, APC, RPC	대형유통점	사육, 도축	수입, 포장, 판매	가공업체

2.4.3. 시스템 간 기술적 연계의 어려움

- 이력관리시스템의 운영기반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별로 중앙정부에서 각기 다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음. 현재 농식품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농산물 'farm2table', 수산물 'fishtrace', 국내산 쇠고기 'mtrace', 수입산 쇠고기 'meatwatch', 가공식품 'tfood'의 5개 시스템이 중앙정부 지원으로 운영됨.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5개 이력관리시스템 이외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나 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연동되지 않아 업체입장에서는 자료를 중복 입력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력번호 조회 시 해당 시스템을 접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혼란스럽고 이용률이 저하됨.

2.5.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참여 부족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력제도의 경우 농가 및 관련 업체의 등록 실적이 저조하고, 정책적 기반 조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 농산물의 경우 등록농가 중에는 식별번호를 포장지에 표시하지 않거나, 인증품을 출하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됨. GAP 인증농가 중에서 이력추적관리 표지를 표시하는 농가는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생산단계에서 고령화 등으로 자율적인 이력관리 등에 어려움이 존재하며, 등록에 대한 유인이 없어 이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또한 GAP 인증을 받으려면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필수적인 요인이나, 등록절차의 번거로움으로 GAP 인증 농가로부터 불만이 제기됨. 그 밖에 농협이나 업체 등의 대행기관에서는 전산 입력 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교재가 어렵게 작성되어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 상담 서비스 부족, 전산 입력 시스템이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메뉴가 바뀌는 불편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에서는 식품표시사항과 같은 정보가 투입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이력추적 관련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인이 없으며, 홍보가 안 되어 인지도도 매우 낮은 상태임.

- 수산물은 채취 수산물의 경우 생산자와 가공업체 등이 다수의 영세 규모여서 관리가 쉽지 않으며, 더욱이 수산물이 산지에서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지만 임의 상장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가와 거래를 할 수 있어 산지 이력추적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2.6.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기반 조성 미흡

2.6.1. 사후관리

- 이력관리에 대한 단속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품목과 제도별로 단속업무가 분산됨에 따라 사후관리업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이력관리 등록에 대한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소비안전과, 원산지관리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수산물관리과, 소비자보호과),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수행함.

- 또한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기적인 관리가 어려워 책임회피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업무교류 부족으로 신속한 처리 미흡 등의 문제점을 나타냄. 업체입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중복 단속을 받음으로써 업무 방해와 비용 발생으로 불만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2.6.2. 홍보 및 교육

- 수입 쇠고기의 경우 중소규모 식육판매장은 2012년부터 전산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업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함.

- 이력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실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소비자와 생산·유통·판매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정보제공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이력관리제도 운영 관련 소비자 평가

3.1. 이력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

- 품목별로 식품사고 위험성과 수입산 둔갑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육류, 어패류, 외식에 대해 식품사고 위험성과 수입산 둔갑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채소, 해조류, 가공식품은 식품사고 위험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나 둔갑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력관리제 추진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품목은 소 부산물로 조사되었으며, 육류의 이력관리 필요성이 높게 평가됨. 소비자 특성별로는 40대 연령층, 고소득계층, 고학력 소비자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3.2. 이력관리정보 이용현황

- 쇠고기의 경우 이력정보를 찾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국내산 29.9%, 수입산 27.6%에 불과하였으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이력을 찾아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농수산물 12.5%, 가공식품 4.9% 수준임.
  - 소비자들은 대부분 포장지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며, 매장 단

말기 확인, 인터넷 조회, 휴대폰 조회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이력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들이 확인방법을 잘 모르거나 복잡하기 때문, 별 관심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임.

● 판매단계에서 쇠고기 이력관리번호 표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관리번호를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국내산 53.9%, 수입산 66.8%에 달함.

3.3. 소비자의 이력관리제도 평가

● 이력관리제도의 추진 목적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이력제도와 안전관리가 차별화된다는 측면에 동의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소비자들은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거래추적뿐만 아니라 소비자 정보제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력관리의 목적으로 추적가능성과 소비자 정보 제공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음.

- 육류, 육가공품, 수산물, 음식점, 급식 등은 식품사고 발생 시의 추적이나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반면, 곡류, 채소, 과일, 천일염 등은 소비자에게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 이력제도 추진범위를 소비자가 농식품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단계까지 한정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여 음식점 단계까지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향후 이력추적관리제품 구입 의향 】

분류	품목	구입의향
매우 높음 (85점이상)	쇠고기	86.4
	돼지고기	85.1
높음 (80점이상)	닭고기	83.1
	어패류(생선,조개류)	81.8
	소부산물(뼈)	81.5
	급식	80.7
	생선회	80.4
보통 (75점 이상)	천일염	79.4
	소부산물(내장)	79.1
	계란	79.1
	우유	78.8
	일반음식점	78.1
	해조류(김,미역 등)	77.7
	유가공품(치즈,버터,분유 등)	77.5
	채소	76.8
	육가공품	76.7
	과일	76.2
	과자 및 빵류	76.2
	김치 절임류	75.2
낮음(70점이상)	쌀	74.8

- 소비자들은 이력관리방식으로 전산 상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품목별로 비교해 보면 쌀과 과일, 채소류 등은 상대적으로 장부상 관리가 적합한 품목으로 인식함.

- 농식품 이력관리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소비자들은 감시, 단속 등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함. 이력번호 확인기기를 설치하거나 정보조회방법을 간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음.

4. 주요 국가 이력관리제도의 시사점

4.1. 세계적으로 소·쇠고기 이력제도는 의무 시행 추세

- 호주, 일본, EU 주요국 등은 BSE 통제와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소·쇠고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제도를 도입·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산시스템 등록의무가 사육에서 도축단계까지 적용된 반면, 한국은 일부 가공장까지 확대, 일본은 특정요리 취급점까지 확대함. 농장식별 번호 등록은 영국과 호주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소비자에 대한 소·쇠고기 이력추적 정보 제공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이루어짐.

4.2. 소 이력제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품목별로 자율적 시행

- 소·쇠고기, 돼지를 제외한 품목들은 대부분 지역별·품목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됨.

4.3. 정보 인식을 통한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력제도 시행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력추적제도의 주요 시행 목적은 추적 가능성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됨.

- 일본의 경우 쌀 이력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별도의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후방으로 연결된 사업자간 이력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할 뿐임.

4.4.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방향 설정

- 소·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품목의 이력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은 제도 및 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과 가이드라인 구축을 지원하는 데에 있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이력제도 운영은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5. 국내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활성화방안

5.1. 농식품 이력관리체계의 추진 방향

5.1.1. 국제기준 부합

- 국제적인 통상마찰 가능성을 피하고 수입 식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CODEX는 2006년도에 "식품이력추적 제도의 원칙"을 발표, 2007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사료 및 식품체인에 있어서 이력추적시스템의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일반원칙과 기본조건"을 발표함.

5.1.2. 이력관리 목적 분명

- 이력관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이 분명하게 법률상 규정되고, 관련 기준설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정책추진 방향이 뚜렷하게 설정되어야 함.

5.1.3. 제도 활성화

- 쇠고기를 제외한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이행실적이 매우 부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5.2. 이력관리제도 목적 재정립

- CODEX는 이력추적(Traceability)을 2001년에는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나, 2004년에는 '생산, 가공 및 유통의 특정 한 단계 또는 복수의 단계를 통해 식품의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적성을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의한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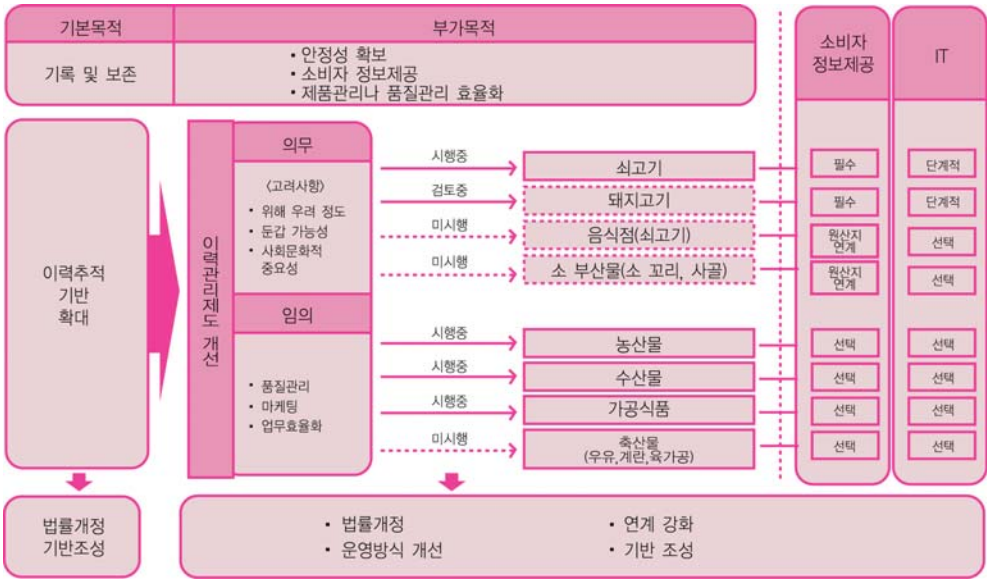
- 일본에서는 2003년 가이드라인에서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푸드 체인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소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반면, 2008년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단계 사업자의 전후관계만 추적하면 된다고 규정을 바꿈.

- 이력추적은 한 단계 또는 복수 단계 이동의 기록·보존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식품의 안전성, 소비자 장보 제공, 제품·품질관리 효율화 등의 부가적인 목적을 선택할 수 있음.

5.3. 이력관리 추진체계 전환

- 농식품 이력관리체계는 정책방향을 이력추적 기반 확대와 이력관리제도 개선의 두 가지 체계로 구분하여 추진. 이력추적 기반 확대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전 과정을 포괄하며, 이력관리제도는 의무 또는 임의 시행함. 대상품목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 정보 제공, 이력관리 방식, 정부의 지원형태가 결정됨.

【 농식품 이력관리 추진체계도 】



5.4. 이력관리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검토

- EU는 “식품법”에서 식품 및 사료사업자들로 하여금 식품 및 사료에 포함되거나 첨가될 모든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의 조달처와 그 물품의 공급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를 명시함. 일본은 의무품목은 특별조치법을 제정, 포괄적인 이력관리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과 JAS 법에 일부 포함함.

- 식품거래 전반에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조정이 필요함. 전면적 이력추적 기반은 표시의무 없이 기록보존의무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식품위생법”에서 기록보존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개인영업체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검토, 농수축산물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의 기록·보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의 책무에서 농수축산물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의 기록·보관 책무에 대해 근거 조항 제시를 검토해야 함.

- 농·수·가공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상호 연계성 제고를 위해 통합 운영이 필요함. 단기적으로 제도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용어, 표시방법, 정보제시방법, 기록 관리기간, 사후관리 등 모순되는 규정을 조정해야 함.

5.5. 이력관리제도 운영방식 개선

- 이력관리 의무화 대상품목은 사회적인 위해 우려 정도와 둔갑가능성, 사회문화적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함.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할 때 향후 의무화 추진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돼지고기, 소 부산물의 순서임.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쇠고기의 경우 외식 소비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외식(급식, 음식점)까지 확대가 필요함.
  - 의무 품목 중에서 개체식별번호 관리가 가능한 소와 돼지고기는 소비자정보제공을 필수, 이력정보에 대한 전산등록 관리는 개체(농장)단위와 도축장까지를 의무화하며 이후 단계는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함.
  - 소 부산물과 음식점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이나 계획은 시장현황과 추진기반을 감안하여 결정, 거래기장 의무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원산지와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함.

- 국가적으로 의무화로 지정한 품목 이외는 '자발적인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원칙, 소와 쇠고기의 이력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유·계란 등의 축산물과 정육을 2차 가공하는 식육가공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함. 계란은 등급판정과 연계하여 시행을 검토함.
  - 자가 품질관리, 마케팅, 안전·재고 등 업무관리 효율화에 활용, 소비자 정보제공이나 전산 관리는 자율적으로 선택

- 정부는 현장의 실정에 맞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함.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식은 크게 ① 시스템개발 및 도입 촉진, ②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 지원 및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③ 이력추적시스템의 보급 및 정보교환의 추

진으로 구분할 수 있음. IT화는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이라는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현재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현장지원 소프트웨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함.

5.6. 이력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 이력관리 의무대상 품목인 쇠고기는 방역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별도 관리하되, 접근방식이 유사한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의 이력관리 기능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쇠고기 이력관리 기관의 통합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관련 업무의 연계를 검토해야 함. 대상품목의 경우 국내산 소뼈 등 주요 쇠고기 부산물에 대한 이력제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연동하여 소비자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것을 검토함. 사후관리와 교육·홍보 업무의 경우 성격이 유사하므로 중장기적으로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합동 업무 추진 등을 통해 효과를 제고함.

- 상호 업무의 연계성이 큰 검역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농장등록제도 등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함. 농장등록제도의 등록정보는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생산단계 등록정보와 상당부분 일치하므로 향후 통합을 목표로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생산자와 품목 생산정보를 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쇠고기는 중장기적으로 농장등록제와 연계 하에 이력관리 대상을 장소중심으로 전환하여 문제 발생 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운영함.

- 식품류별 이력관리시스템,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이 손쉽게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기술적 조건을 보완함. 이력관리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소비자 홍보를 적극 추진함.

5.7. 이력관리 기반 조성

- 농가의 영농일지 기장 지도, 영농지침개발 및 교육 등 생산단계 시행기반 조성이 선행되고, 유통과정에서 거래내역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통절차 및 제도의 개선, 업체 간 거래단계별 이력정보 기록 규정 점검, 제품표준화 등이 필요함.

- 이력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기술을 확립하고 식품표시 검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인력 및 장비 확충이 필요함.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판매자 등에 대한 장려정책과 매스컴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전달이 뒷받침되어야 함.

【특별 주제 2】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장재봉*

1. 유가공 식품제조업의 구조

1.1. 유가공산업 시장 규모

- 우리나라 유가공제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저출산, 모유 수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시유 및 분유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대체음료 시장의 확대 등으로 시장의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대 유가공제조업의 출하액은 연평균 5.7%씩 증가하여, 각국의 로컬 푸드가 발생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먹을거리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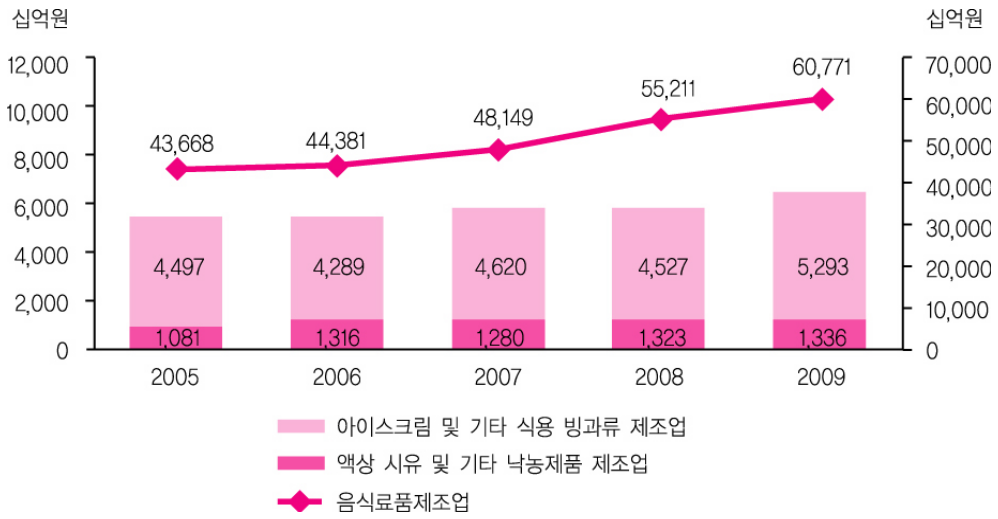
- 우리나라 유가공제조업은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저출산, 모유 수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시유 및 분유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대체음료 시장의 확대 등으로 시장의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2000년대 유가공제조업의 출하액은 연평균 5.7%씩 증가하여, 2009년 유가공제조업의 출하액은 6조 6,288억 원으로 전체 음식료품제조업 매출액의 10.9%를 차지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이 음식료품제조업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jbchang@krei.re.kr)
** 본고는 2011년 12월 발간된 「농어업 부가가치의 새로운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3/5차년도)」의 일부임.

8.7%,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가 2.2%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유가공업의 2009년 출하액은 모두 2000년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0년 대비 2009년의 출하액은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의 경우 약 40.2% 증가한 반면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의 경우에는 약 440.2% 증가해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가공산업의 출하액 추이 】



1) 음용유용 원유는 시유 백색, 가공생산에 투입된 원유량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 유가공업 사업체 수는 2000년 이후 큰 증감 없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144개였음.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의 경우 그 수가 70~90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2009년에 들어서며 처음으로 91개를 넘었음.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의 경우 2002년 73개로 최대 업체수를 보인 것 외에는 50~70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음. 2002년에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일시적으로 1~9명 사이의 소규모 업체가 전년도 16개보다 56% 증가한 25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유가공업 사업체 및 월평균 종사자 수 추이 】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 수		월평균 종사자 수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2000	84	54	10,716	3,532
2001	86	58	8,563	2,838
2002	84	73	11,494	3,364
2003	74	64	7,637	3,625
2004	82	56	8,761	3,202
2005	78	67	7,677	3,512
2006	89	64	8,271	4,619
2007	82	58	7,111	3,205
2008	82	51	7,005	2,768
2009	91	53	6,788	2,470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전국사업체 조사」.

- 유가공업의 월평균 종사자 수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0년 대비 2009년의 종사자 수는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과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모두 각각 36.7%, 30.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대 전체 식품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4.2%의 증가세를 보였음.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의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3.4% 수준을 보이며 2009년 부가가치는 1조 9,778억 원 규모였음. 반면,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20%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로 관련 제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2009년 부가가치는 7,203억 원 수준이었음.

- 2009년 기준 출하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37%,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53%임.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과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모두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큰 증감 없이 비슷한 수준의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유가공산업의 부가가치 및 부가가치율 추이 】

단위: 백만 원, %

구분	부가가치			부가가치율	
	식품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2000	15,052,314	1,465,603	139,880	38.8	56.56
2001	14,853,855	1,289,182	363,190	34.2	54.83
2002	15,930,390	1,321,636	422,786	35.1	54.63
2003	15,724,809	1,325,648	405,587	35.4	56.89
2004	18,118,937	1,713,137	492,638	40.6	57.62
2005	17,841,267	1,786,493	601,983	39.7	55.70
2006	17,756,352	1,694,805	711,348	39.5	54.07
2007	19,473,346	1,946,804	720,993	42.1	56.34
2008	20,651,160	1,586,783	829,289	35.1	62.67
2009	21,803,904	1,977,780	720,256	37.4	53.92

*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계되었음.

자료: 통계청(www.kosis.kr), 각 연도, 「광업·제조업 조사」.

1.2. 유가공산업의 시장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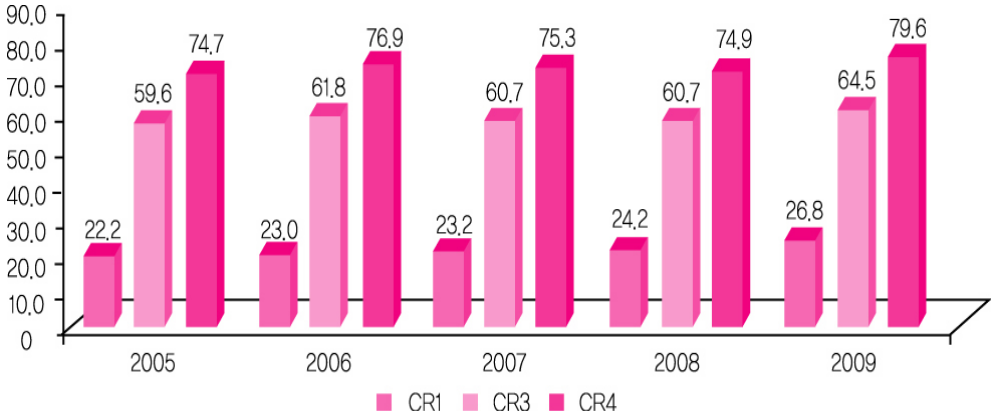
- 우리나라 유가공제조업은 시장성장이 정체 된 가운데 대표적인 과점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특히 산업 내 최상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기준 26.8%였으며 상위 4개 기업(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남양유업)의 시장점유율은 80%에 육박하였음.

- 유가공업계 1위기업인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집중도는 2005년 22.2%에서 2009년에는 26.8%로 증가하였으며,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집중도는 2005년 74.7%에서 2009년에는 79.6%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유가공시장의 집중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유가공시장의 집중화 현상은 유가공산업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함. 유가공제품은 일반적으로 보존기간이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치즈와 버터 등의 고급유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제조기술 수준이 낙농선진국에 비해 낮아 수출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으로 대표적인 내수위주의 시장구조를 나타냄. 또한, 유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이 매우 제한적인 특징을 가짐.

-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국내 유가공산업은 다양화되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신제품의 경쟁적인 출시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시장 내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수입 유제품과의 품질과 가격경쟁이 불가피함.

【 유가공산업의 시장 집중도 】



자료: 식품의약안전청, 각 년도.「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전자공시시스템, 각 기업별 재무제표 원자료.

1.3. 유가공품목별 시장구조

1.3.1. 시유

- 2010년 시유 생산량은 2000년 이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0년 기준 시유 중 백색시유 생산량은 약 136만 톤으로 가공시유 생산량인 약 28만 톤보다 4.9배 수준이며, 이는 2000년 기준 6.5배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전체 시유 중 백색시유 생산 비중은 각 년도에서 큰 증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가공시유의 경우에는 2000년 대비 2000년대 중반에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이후 가공시유 생산 비중은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00년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유 생산 및 소비량 】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생산	백색시유	1,447,376	1,310,882	1,361,915	1,351,540	1,389,585	1,361,958
	가공시유	224,132	380,317	334,631	350,754	312,270	279,160
	계	1,671,508	1,691,199	1,696,546	1,702,294	1,701,855	1,641,118
소비	백색시유	1,447,376	1,310,882	1,361,915	1,351,540	1,389,585	1,361,958
	가공시유	224,132	380,317	334,631	350,754	312,270	279,160
	계	1,671,508	1,691,199	1,696,546	1,702,294	1,701,855	1,641,118

1) 시유는 생산량이 모두 소비된 것으로 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3.2. 발효유

- 발효유 중 액상발효유는 2000년에 약 405톤이 생산된 이후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다시 증가하여 약 373톤이 생산되었음. 반면 호상발효유는 2000년에 약 124톤이 생산된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2009년보다 감소한 약 129톤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음. 발효유 소비량은 액상발효유와 호상발효유 모두 생산량 대비 약 99.9%로 100%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발효유 생산 및 소비량 】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생산	액상발효유	405,267	326,755	309,183	289,227	268,404	373,322
	호상발효유	124,336	155,683	176,035	165,704	177,334	129,282
소비	액상발효유	402,112	320,777	303,738	284,205	262,908	367,781
	호상발효유	123,997	155,756	175,937	165,643	177,170	129,25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3.3. 치즈

- 자연치즈 생산량은 2006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2007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일시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0년대 가공치즈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0년에 1만 9,491톤을 생산해 2000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연치즈 소비량은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 6만 4,333톤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 소비량인 2만 2,198톤보다 약 2.9배 증가한 수치임. 가공치즈 소비량은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 가장 많은 양인 2만 9,969톤을 소비해 이후 2008년보다 약 1만 톤 이상 많은 양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음.

【 치즈 생산 및 소비량 】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생산	자연치즈	4,107	11,692	9,076	9,702	7,682	7,915
	가공치즈	10,873	12,032	15,290	15,314	15,517	19,491
소비	자연치즈	22,198	41,382	44,419	52,993	51,755	64,333
	가공치즈	21,991	26,908	29,969	18,959	19,688	24,27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3.4. 분유

- 조제분유 생산량은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7년 이후 2006년에 1만 2,766톤을 생산하며 최소 생산량을 기록했음. 이후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기는 했으나 큰 증가 없이 1만 4천 톤 가량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음. 전지분유 생산량은 2002년 9,074톤으로 급증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0년 생산량은 2,569톤으로 2000년 5,491톤 대비 50% 수준으로 나타났음. 탈지분유 생산량 역시 2002년에 3만 5,946톤으로 급증한 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조제분유 소비량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 2005년 이후 1만 4천여 톤 내외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전지분유 소비량은 2003년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탈지분유 소비량은 2000년대에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2003년에 3만 5,450톤으로 생산량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0년에는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음.

【 분유 생산 및 소비량 】

단위: 톤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생산	조제분유	26,612	15,204	14,642	15,632	14,453	14,513
	전지분유	5,491	4,762	3,565	3,430	3,124	2,569
	탈지분유	24,257	23,677	22,158	19,885	15,193	9,519
소비	조제분유	27,282	15,742	14,629	15,034	13,913	14,860
	전지분유	5,560	6,645	4,626	4,941	4,209	4,160
	탈지분유	20,750	25,784	22,674	25,344	27,795	19,58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4. 유가공제품의 수입 구조

1.4.1. 유제품 수입 개황

- 유제품 수입 물량은 2000년 13만 4,020톤에서 2007년 18만 3,400톤으로 증가한 이후 약간 감소했다가 2010년에 20만 6,508톤을 기록해 2000년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유제품 수출 물량은 2007년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 외에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2만 4,457톤에 달해 2000년 8,244톤과 비교해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 금액은 2000년 2억 1,716만 달러에서 2010년 6억 8,168만 달러로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 금액은 2000년 1,344달러에서 2010년 7,987달러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제품 수출입 개황 】

단위: 톤, 천 $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수입	물량	134,020	171,349	183,400	164,236	175,801	206,508
	금액	217,163	413,823	554,972	671,453	499,975	681,676
	원유환산량	572,430	829,651	880,760	882,633	957,583	1,132,071
수출	물량	8,244	20,873	18,970	21,534	24,224	24,457
	금액	13,441	37,362	47,131	66,627	71,189	79,867
	원유환산량	25,605	50,055	47,106	53,359	71,437	75,680

자료: 관세청

- 2010년 기준 수입 물량은 수출 물량보다 약 8.4배 더 많았고, 수입 금액은 수출 금액보다 약 8.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2000년 각각 16.3배, 16.2배 보다 절반가량 적은 수준으로 점차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1.4.2.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 탈지분유 수입 물량은 2000년 3,003톤에서 2009년 9,638톤으로 약 3.2배 증가한 후 약간 감소하여 2010년 7,874톤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지분유 수입 물량은 2000년 692톤에서 2005년 1,742톤으로 2.5배 증가했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0년에는 1,237톤으로 약 1.8배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발효유 수입 물량은 2000년 47톤에서 2007년 214톤으로 약 4.5배 급증했으며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78톤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치즈 수입 물량은 2000년 3만 515톤에서 2010년 6만 919톤으로 약 2배 증가했음. 저지방우유를 포함한 시유 수입 물량은 2000년 0.01톤이었으나 이후 급증하여 2005년에는 3,623.8배, 2007년에는 929.5배, 2008년에는 325배, 2009년에는 331배, 2010년에는 114.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품목 중에서는 치즈의 수입 물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탈지분유, 전지분유, 발효유, 저지방우유를 포함한 시유 순으로 나타났음. 치즈와 탈지분유의 수입 물량 차이는 2000년 기준 10.2배에서 2010년 기준 약 7.7배로 조금 감소했음.

【 품목별 유제품 수입 물량 】

단위: kg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탈지분유	3,003,803	6,147,122	4,928,376	4,915,482	9,638,466	7,874,733
전지분유	692,250	1,742,506	1,135,864	1,260,685	1,159,316	1,237,336
발효유	47,958	82,639	214,461	75,951	65,286	78,377
치즈	30,515,282	44,016,818	49,470,818	47,384,734	49,023,101	60,919,119
시유	10	36,238	9,295	3,250	3,310	1,141

1) 전체 18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삭제했으므로 '유제품 수출입 개황' 표와 총합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관세청

● 탈지분유 수입 금액은 2000년 494만 달러에서 2010년 2,407만 달러로 약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지분유 수입 금액은 2000년 131만 달러에서 2005년 434만 달러로 3.3배, 2008년 596만 달러로 4.6배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441만 달러로 3.4배 증가해 2005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발효유 수입 금액은 2000년 123만 달러에서 2007년 105만 달러로 약 8.2배 증가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56만 달러로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치즈 수입 금액은 2000년 7,060만 달러에서 2010년 2억 5,856만 달러로 약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품목 중에서는 치즈의 수입 금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탈지분유, 전지분유, 발효유, 저지방우유를 포함한 시유 순으로 나타났음. 치즈와 탈지분유의 수입 금액 차이는 2000년 기준 14.3배에서 2010년 기준 10.7배로 조금 감소했음.

【 품목별 유제품 수입 금액 】

단위: 천 $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탈지분유	4,939	14,568	17,334	19,629	23,007	24,074
전지분유	1,309	4,342	3,366	5,955	3,533	4,409
발효유	129	398	1,054	583	484	562
치즈	70,598	143,526	178,992	238,876	189,917	258,556
시유	0	69	50	18	11	5

1) 전체 18개 품목 중 주요 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삭제했으므로 '유제품 수출입 개황' 표와 총합은 일치하지 않음.
자료: 관세청

2. 유가공 산업의 전후방 연계구조

2.1. 원유의 투입구조

- 낙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는 유가공업체에서 가공되어 시유(우유), 발효유, 분유, 아이스크림 등의 유제품과 기타 음식료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등으로 투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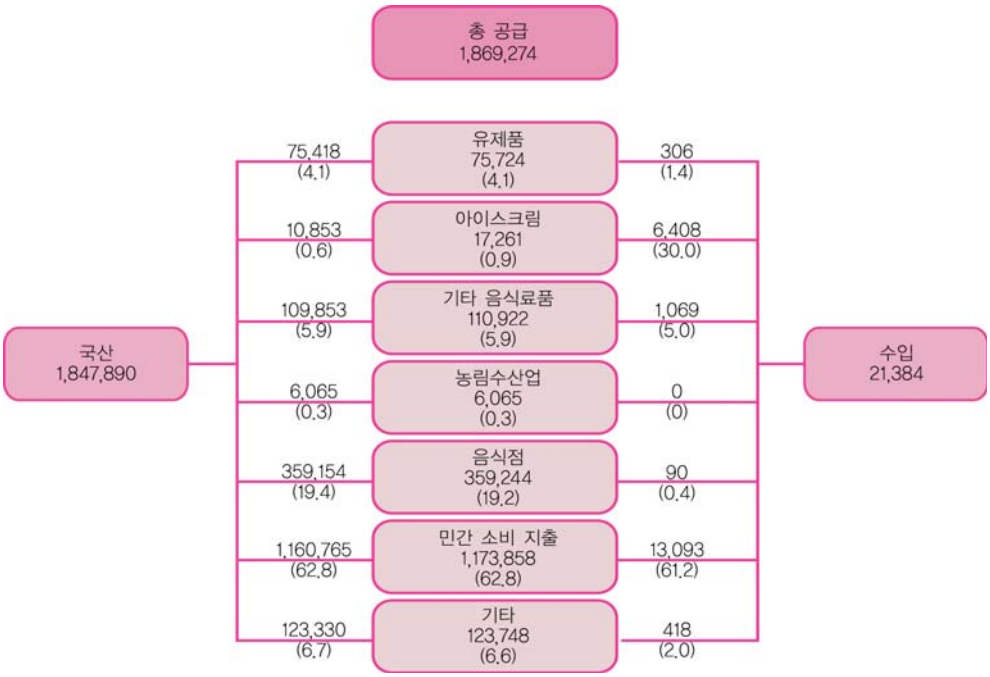
-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낙농(원유)의 투입 구조를 분석하면 투입금액 기준으로 우유 생산에 9,811억 원으로 전체 투입금액의 57.3%, 기타 유제품의 생산에는 5,173억 원으로 30.2%, 다른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가공 원료로 2.5%가 지출되었음. 그러나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는 원유가 아닌 낙농으로 분류하고 있어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와의 기준이 모호하므로 우유의 투입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08년 산업연관표 산업 분류의 기본분류를 기준으로 우유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 우유투입액의 4.1%인 754억 원이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유가공제품의 생산에 지출되었으며 아이스크림 제조에 109억 원이, 기타 가공용 원료로 1,099억 원이 지출되었음. 국내산 우유의 62.8%가 민간소비로 지출되었으며 19.4%가 음식점에서 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수입산 우유도 국내산 원유와 마찬가지로 민간 소비지출에 가장 많이 투입되었음. 식품산업에 투입되는 규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에 64억 8백만 원으로 가장 크고, 기타 음식료품의 원료에 10억 6천 9백만 원, 유제품 제조업에 3억 6백만 원이 투입되었음.

【 우유의 투입구조, 2008 】

단위: 백만 원, (%)



자료: 한국은행. 2008. 「산업연관표」.

2.2. 유가공 업체의 원유 구입 및 산지 연계 실태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실시한 2010년도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 소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유가공업체의 원료 구입 및 산지 연계 실태를 분석하였음.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체 중 우유를 원료로 사용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48개였음. 이들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체에서 주요 원료인 우유를 구매 및 조달하는 방식은 산지직구매가 40.5%로 가장 많았고 유통업체에서 30.7%, 도매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로부터 3.9%의 비중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업종의 특성 및 규모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우유를 구매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 175개를 매출액과 종사자수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우유 구매 및 조달처 비중을 살펴보면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증가

할수록 산지직구매를 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도매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통한 구매 및 조달 비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매출액 10억 미만, 종사자수 5~9인 규모의 업체에서 산지직구매를 하는 비중은 0%로 나타났음.

【 우유 구매처 및 조달처 비중 】

단위: %

산지직구매	도매 및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통업체	기타
40.5	3.9	30.7	24.9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2010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편」.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체 중 우유를 산지에서 직구매하는 업체는 총 21개로 조사되었음. 21개 업체 중 80.9%의 업체에서는 계약생산을 통한 산지직구매를 하고 있고, 직접생산을 하는 업체는 14.3%, 1회성 수시 매입하는 업체는 4.9%로 조사되었음. 매출액이 10억~100억 미만인 업체는 계약생산을 통해 산지직구매 하는 비중이 100%로 나타났고, 100억~400억 미만 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생산하는 비중이 33.3%로 나타났음.

【 우유 산지직구매 형태 】

단위: %

		빈도수	계약생산	직접생산	1회성 수시매입
업종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21	80.9	14.3	4.9
매출액	10억-100억 미만	4	100.0	0.0	0.0
	100억-400억 미만	3	66.7	33.3	0.0
	400억 이상	14	78.5	14.3	7.3
종사자수	10-29인	4	75.0	25.0	0.0
	30-49인	2	100.0	0.0	0.0
	50-99인	3	100.0	0.0	0.0
	100-299인	7	71.2	14.4	14.4
	300인 이상	5	80.8	20.0	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2010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편.

● 산지 직구매로 우유를 구매 및 조달하는 업체 중 계약생산, 직접생산이 아닌 1회성 수시매입을 하는 업체는 총 1개로 나타났음. 이 업체가 우유를 계약거래 및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농축산물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식품제조업체의 우유 총 구매량은 약 122만 톤으로 업체당 평균 4,740톤의 우유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업종별로 살펴보면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체의 우유 총 구매량은 118만 톤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의 총 구매량은 4,307톤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의 업체 수는 48개로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의 업체 수 64개보다 16개가 더 적으나, 우유 총 구매량은 약 275배, 업체당 평균 구매량은 약 606배가 더 많아 대부분의 우유가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체의 우유 구매량 】

단위: 톤

구분	빈도수	평균	총합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48	23,349.20	1,186,139.28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2010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편」.

● 식품제조업체의 우유 총 구매비용은 약 1조 3,218억 원으로 업체당 평균 약 51억 원의 우유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업종별로 살펴보면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의 총 구매비용이 1조 2,874억 원으로 전체의 9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의 총 구매비용은 55억 원으로 전체의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의 우유 총 구매비용은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보다 약 231배, 업체당 평균 구매비용은 약 508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유 구매비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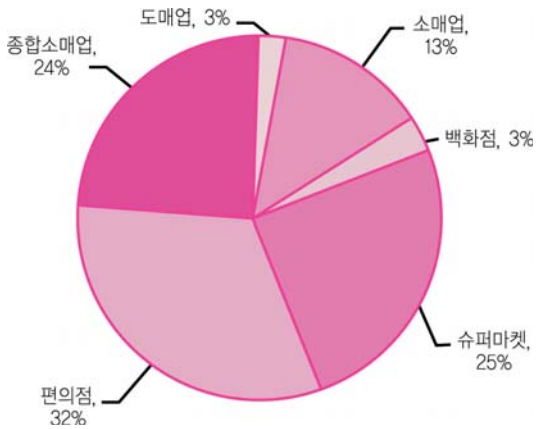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구분		빈도수	평균	총합
전체		175	5,132.32	1,321,822.65
업종	육류가공및저장처리업	2	20.78	68.96
	수산동물가공및저장처리업	1	20.00	22.86
	과실,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	2	7.74	22.85
	동물성및식물성유지제조업	1	137.00	137.00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업	48	25,344.03	1,287,476.82
	곡물가공품제조업	8	344.13	2,976.23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1	0.30	0.30
	떡,빵및과자류제조업	64	49.80	5,572.62
	면류,마카로니및유사식품제조업	2	84.21	225.10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업	14	59.54	1,058.76
	기타식료품제조업	27	127.10	6,438.59
	발효주제조업	1	2.50	3.23
	비알콜음료및얼음제조업	4	4,042.92	17,519.3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2010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편.

- 대표적인 유가공제품인 백색시유는 전국적으로 체인화 된 편의점으로의 납품비율이 32%로 가장 높았으며, 슈퍼마켓 25%, 종합소매업 24%, 소매업 13%의 순으로 납품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유의 유통형태 】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2010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편.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체에서 외국산 우유를 구매하는 비율은 8%로 다른 식품가공 산업에 비해 외국산 원료의 사용비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25% 미만의 비율로 외국산 우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4.1%, 75% 이상의 비율로 외국산 우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3.9%로 나타났음.

【 외국산 우유 구매 비율 및 주요 수입국 】

단위: %

국산	외국산		주요 수입국		
	25% 미만	75% 이상	일본	덴마크	뉴질랜드
92.0	4.1	3.9	4.2	24.6	24.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2010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편.

● 유가공산업은 높은 위생수준과 전문기술, 자본력과 유통조직 등이 필요해 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이 어려운 특성을 가짐. 따라서 유가공시장의 성장이 정체 된 가운데 상위 기업들에 의한 과점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임. 과점구도에 따른 상위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머지 중소 업체들 사이의 시장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시장형태는 주요 원료의 조달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대기업형태의 유가공업체는 산지 직구매 비중이 41%로 높고, 산지직구매 중 계약생산이 81%로 안정적 원료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음.

3. 유가공산업의 당면문제 및 발전전략

3.1. 당면문제

3.1.1. 원유수급조절 한계

- 지속적인 생산조절제의 시행과 구제역 및 하절기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2010년 원유생산량은 전년대비 1.8% 감소하여 일시적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하였음. 이처럼 낙농산업은 장치산업으로 단기에 충분한 생산기반의 확보가 어렵고 젖소의 생리적 특성상 수급조절이 어려움.

-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 일반 유업체의 직거래농가, 그리고 가공조합 등의 집유주체별로 낙농가를 관리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전체적인 수급조절이 어려우며 농가간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낙농진흥회의 집유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그 대표성을 상실한 실정임. 따라서 중립적 성격의 낙농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함. 전국적인 쿼터관리, 용도별 최저 원유가격 가이드라인 제시뿐만 아니라 유가공연구 등 전반적인 낙농 및 유가공 관련 업무를 국가차원에서 진흥시키기 위한 위원회 설치가 요구됨.

3.1.2. 유지방 위주의 원유가격 산정 및 과도한 유통마진

- 현재의 유지방 위주의 원유가격체계는 젖소수명을 단축시키는 사양관리체계를 유발하여 생산비를 상승시키며, 최근의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업 확대에 대한 관심증가 추세에 반하여 낙농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임.

- 이러한 유지방 함량에 따른 차등가격제도는 건강·웰빙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증가에 따른 무지방 및 저지방 백색시유의 소비확대에 따라 유가공업체의 탈지공정 증가에 따른 비용이 우유가격에 반영되어 가격왜곡 현상을 초래하여 우유소비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원유가격산정방식과 함께 유가공제품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는 특징이 있음. 유통형태별 매출량이 대형마크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방문판매와 소매점 판매 비율이 높은 편임. 이러한 다단계의 유통구조로 인해 백색시유의 경우에는 제품가격의 30% 이상이 유통마진으로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유통단계로 인해 제품가격대비 과다한 유통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1.3. 유가공제품의 소비정체

- 전형적인 내수소비산업의 특성을 가지는 유가공산업은 대체 음료의 개발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가공제품 소비량이 정체 내지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국, EU와의 FTA 발효에 따라 국내산 원유의 소비감소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이처럼 유가공제품은 소비패턴의 변화, 경기침체, 홍보사업 여부 등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증감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체된 유가공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호상발효유 시장과 저지방, 유기농 유제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가공업체들의 관련 상품 개발 등의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임.

3.1.4. 영양성분 등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 미흡

- 유가공제품의 영양성분 및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우유 및 유가공제품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신감 조성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미흡하였음.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원유가격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으며, 중국 등 한정된 해외시장으로 조제분유와 발효유 위주의 한정된 품목만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임.

3.1.5. 유가공제품의 수입 증가

- 국내산 원유의 생산감소와 소비자들의 해외 고급유가공제품의 선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요 유가공제품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유가공제품의 원료

로 사용되는 혼합분유와 버터, 치즈 등의 수입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이와 함께 낙농선진국 유제품에 대한 국내 홍보가 강화되고 있어 수입량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수입량 증가는 중국 등 신흥경제국에 대한 유가공제품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공제품의 국산원료와의 대체로 이어져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기반이 위축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됨.

3.2. 시장전망

- 2010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과 하절기 혹서 등의 원인으로 원유생산량이 감소하여 분유재고가 감소하였으며,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과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원유공급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건강 및 웰빙 추세에 따른 소비자들의 유가공제품에 대한 기호변화에 대응하여 저지방 및 무지방 우유와 유기농 우유 등 고급화를 추구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한 발효유 시장은 건강 지향적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제품들과 기능성과 특정 성분을 강화한 제품과 무첨가 호상발효유 제품 위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유가공업체들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에 크게 좌우되는 특성을 가진 유가공산업은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소비확대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지난 8월 원유가격 인상으로 유가공제품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와 유기농 우유 가격논란으로 인해 유가공업체들이 원유가격 인상분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여 업체들의 경영압박으로 작용해 왔음. 그러나 최근 유가공업체들은 더 이상의 경영적자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소비자가격 인상을 발표하였음. 2008년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유가공제품 가격 인상이 2009년 소비감소로 이어진 경험과, 소비자 조사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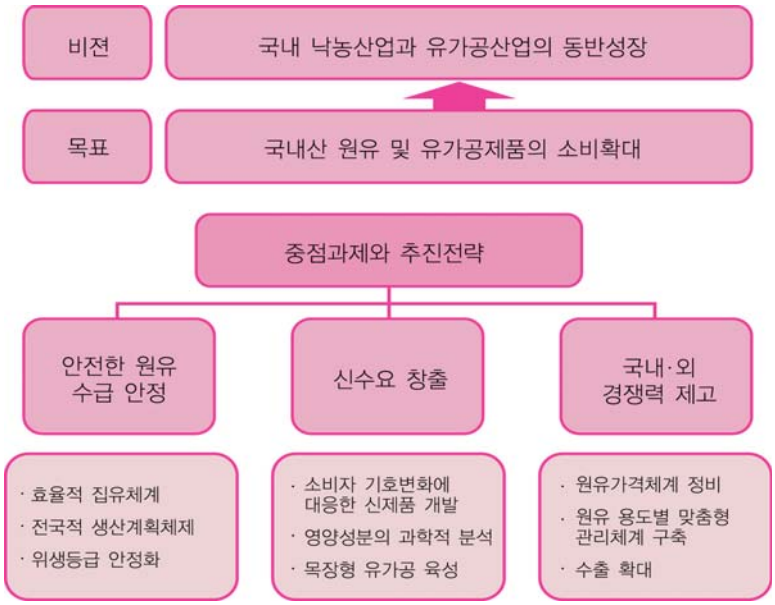
나타났듯이 가격상승을 유가공제품의 소비의향축소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으로 볼 때, 이번 원유가격 인상이 제품가격의 인상영향으로 작용할 경우 유가공제품의 소비감소가 예상됨. 즉, 경기상황에 민감한 유가공산업의 특성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가 예상되며, 원유가격 인상으로 제품가격이 인상된다면 단기적으로 유가공제품의 소비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내수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는 수출주력 유가공제품인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유가공업체들의 꾸준한 국산 조제분유의 품질과 안전성 향상노력은 인정을 받고 있어 주요 수출대상국의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수입측면에서는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 공급량이 감소하여 유가공제품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할당관세 및 무관세 도입으로 유가공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관세 연장여부에 따라 수입량의 증가 추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3.3. 유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

- 국내원유를 사용하는 유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유가공산업의 비전으로 '국내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의 동반성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국내산 원유 및 유가공제품의 소비확대를 목표로 하였음.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중점 과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음.

【 유가공산업의 비전과 목표 】



3.4. 발전전략

3.4.1. 안전한 원유의 수급안정

- 원유의 수급조절을 위해 설립된 낙농진흥회의 집유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집유 체계가 다원화되어 본연의 설립 목적인 안정적인 생산조절에 실패하게 되었음. 따라서 낙농진흥회의 기능에 대한 재점검 혹은 새로운 중앙낙농기구 설립을 통한 집유 체계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생산조절제도의 확립이 필요함. 이와 함께 현재 집유 주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단일쿼터제의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위생등급별 차등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원유의 세균 및 체세포에 따른 품질향상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저품질의 원유 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유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안정된 위생등급을 적용하여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함.

3.4.2. 신수요 창출

- 변화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건강 지향적 유가공제품 및 기능성 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들은 유가공제품을 건강 및 영양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의 영양소에 대한 과학적 기초 연구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시의적절한 정보제공과 유가공식품의 안전문제 발생 시 제한적인 대처에 그쳤었음. 따라서 영양성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영양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사업으로 정체된 소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소비자들이 유가공제품을 선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영양섭취라는 조사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에 기초하여 유지방 외에 우유의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과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학교급식비율 증가로 연계시켜 정체된 우유 등의 유가공제품 소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낙농산업의 주체는 낙농가 등의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체이므로 우유 등 유가공제품 소비 홍보의 주체도 낙농가 등의 생산자와 유가공업체가 되어야 할 것임. 정부는 유가공제품의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측면의 방향 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함. 정부는 우유 및 유제품의 영양성분 분석, 청소년 등 소비자들의 유가공제품 소비실태 조사 등의 기초적 R&D 연구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유의 영양성분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등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임.

- 유가공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소비확대 노력과 함께 체험목장 등 농촌관광과 연계한 목장형 유가공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비자 인식확산과 한국형 유가공제품 개발 등의 틈새시장 개척이 필요함.

〈 미국 Tilamook 치즈공장 사례 〉

○ 미국 오레곤주 틸라묵에 위치한 틸라묵 치즈공장은 1909년에 인근의 낙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유가공업체로 서부지역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음.

○ 성장호르몬을 사용하지 않은 젖소에서 생산된 최고급 원유만을 사용하여 치즈를 생산함.

○ 틸라묵 치즈공장을 "치즈를 사랑하는 이들의 낙원"으로 조성하여 연간 백만 명에 달하는 방문자들이 인근 낙농가와 공장을 방문하여 가공공정을 직접 견학하고 생산된 치즈와 아이스크림을 시식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소비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유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형성에 기여하고 있음.

3.4.3. 국내외 경쟁력 제고

-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함께 유가공제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수요 증가 속도는 생산증가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중국의 경우 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유가공제품의 수요 증가가 유가공제품의 수급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에 지속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발효유, 조제분유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주요 품목을 수송비와 신선도 유지 등이 중요한 시유의 수출에 지역입지 조건의 장점으로 활용한다면 중국, 일본 등 경쟁력 있는 유가공제품의 해외 시장 개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 확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지사 등을 통한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주요 수출대상국에 대한 경쟁국들의 수출전략 분석 등의 지원이 복합적으로 필요함.

- 저지방 및 무지방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에 반하여 국내 원유가격산정은 지방함유량만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낙농가들의 생산비 상승과 유가공제품의 가격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선진낙농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

는 지방 외에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함께 고려하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요 낙농국가별 원유가격 및 성분함량별 단위 가격 】

구분	기본원유가	유지방		총단백질		비고
		기준	단위당 가격	기준	단위당 가격	
한국	834원/ℓ	3.4%	±10.3원 /0.1%	-	-	유지방 상한 4%, 하한 3%
호주	-	-	2.25cent /0.1%	-	5.65cent /0.1%	1AUD=100cent
뉴질랜드	-	-	2.36cent /0.1%	-	2.636cent /0.1%	지방 및 단백질 고형분 가격임
덴마크	-	-	0.2625DDK /0.1%	-	0.4463DDK /0.1%	수송 및 집유비용 0.12DDK/kg 차감
핀란드	-	-	0.024EUR /0.1%	-	0.065EUR /0.1%	-

자료: 조석진, 박종수. 2011.「낙농산업 발전의 걸림돌: 유지방 중심 원유가격체계」.

- 2008년과 2011년 원유가격 인상과 같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유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사료가격의 인상이 향후 국제곡물가격의 불안정과 인상 요인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도 원유가격의 인상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사료가격 등과 같은 생산원가를 원유가격에 탄력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유가격 현실화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원유의 용도별(시유와 가공용, 내수용과 수출용) 가격차별 및 관리체계를 구분하여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수입대체를 위한 국내산 가공원료유 지원확대로 낙농가와 유가공업체의 동반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3.4.4. 고부가 유가공 기술개발

- 앞으로 유가공 제품개발은 건강기능성의 향상을 중점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노령인구의 증가, 각종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약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탄수화물인 유당과 지방, 단백질 등 원유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의 영양소와 유산균 등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유제품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함.

3.4.5.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일반식품의 유용성 및 기능성 표시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 식품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은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보완을 통한 현실화가 필요함. 정부는 현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기능성 표시내용을 축산물가공품의 특성이나 제조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임. 유산균 및 천연물의 기능성을 이용한 발효유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해도 현재는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앞으로 다양한 기능성을 요구하는 대중의 소비패턴을 감안할 때 기존의 단순강화제품보다는 순수연구를 기초로 한 응용기술이 접목됨으로써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됨.

4. 참고 문헌

농림수산식품부. 낙농진흥회. 2011. 「2010 낙농통계연감」.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 「2010 식품산업 분야별 원료소비 실태조사 통계편」.

식품의약안전청. 각 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각 기업별 재무제표 원자료.

조석진 박종수. 2011. 「낙농산업 발전의 걸림돌: 유지방 중심 원유가격체계」. 시선집중 GSnJ 제121호.

통계청(www.kosis.kr). 각 년도. 「광업·제조업 조사」.
통계청(www.kosis.kr). 각 년도. 「전국사업체 조사」.
한국은행. 2010. 「2008 산업연관표」.